

# 서원향사



書院享祀  
옥산서원



# 서원향사



書院亭祀  
명신서원·옥신서원

## 일러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병산서원》(2009년), 《옥산서원》(2010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에는 임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http://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김경선(제례)·정승모(역사)·임형진(운영), 《옥산서원》은 이수환(역사)·정승모(제례)·이명진(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 故 정승모 선생님의 명복을 바랍니다.

##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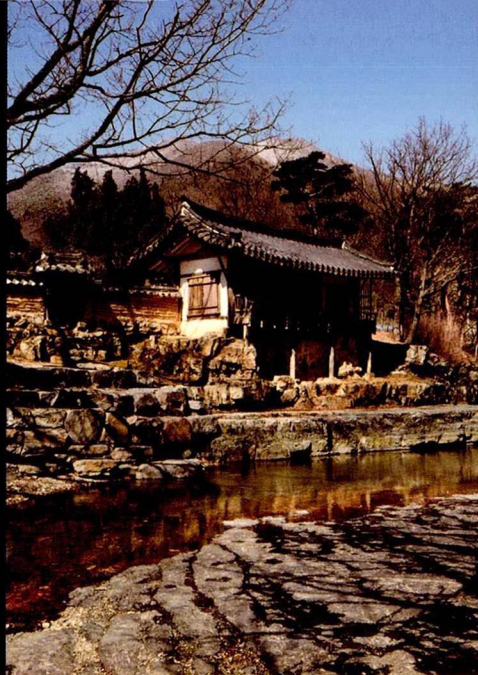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 조사한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병산서원·옥산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병산서원은 영남 유생의 추앙을 받는 유학자로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애 류성룡의 학문을 추앙하는 곳이며, 옥산서원은 사람의 도학적 정통 계승자로 천명되었던 회재 이언적의 요람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두 서원은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 目次

## 145 II. 옥산서원 향사

### 147 1. 옥산서원의 역사

- 1) 옥산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 2) 옥산서원의 연혁
- 3) 옥산서원 소장 문적
- 4) 옥산서원의 건물과 배치
- 5) 이언적의 생애와 사상

### 187 2. 옥산서원의 향사

- 1) 옥산서원 개요
- 2) 춘추향례 春秋享禮
- 3) 정알례 正謁禮와 삭망례 朔望禮
- 4) 제물 祭物 · 제기 祭器 · 제구 祭具





### 267 3. 옥산서원 향사의 특징

### 271 4. 옥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2) 전승과 지속

### 283 옥산서원 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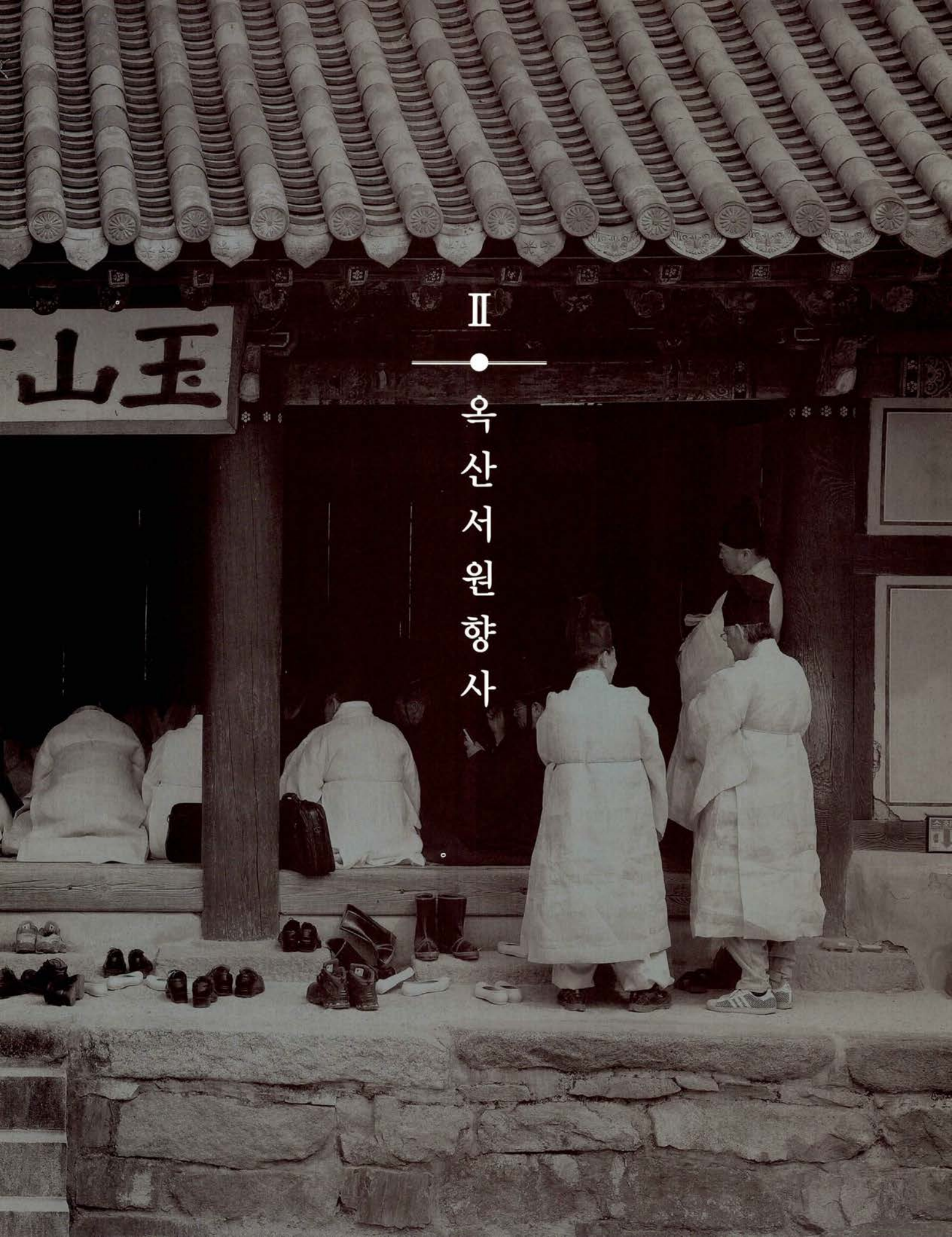




言院

宣賜  
萬曆甲戌 賜額後三六  
十二年 己亥 夫 亥 言





II

—●—  
옥산서원향사

玉山



文元公晦齋先生



# 1. 옥산서원의 역사

## 1) 옥산서원의 입지와 자연경관

옥산서원은 경북 영천에서 28번 국도를 따라 포항으로 가다보면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자옥산(紫山)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옥산서원 제향자인 이언적(李彦迪)이 어린 시절 독서를 했던 곳이며, 1532년(중종 32) 관직생활 중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하다 오히려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 파직되자 낙향하여 계정(溪亭)·양진암(養進庵)·옥산정사(玉山精舍) 등의 건물을 짓고 5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완성해 나갔던 곳이다.

옥산은 경주부 속현인 안강현(安康縣) 내에 있는 임내(任內)지역으로 조선 전기까지는 미개발된 지역이었다. 옥산이 지금처럼 넓은 농지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언적과의 인연을 통해서이다. 이언적은 1504년(연산군 10) 14세에 양좌동에서 멀지 않은 정혜사(定惠寺)에 머물면서 성리학 공부를 하였다. 유학을 공부하는 이언적이 학업의 장소로 사찰을 찾은 것은 당시로

옥산서원 길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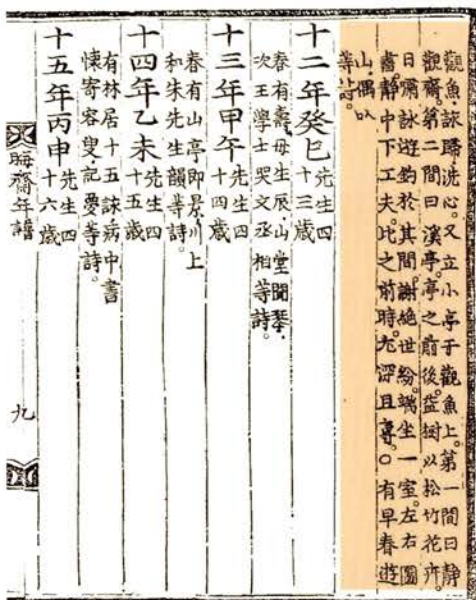


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조선 전기는 '순유(純儒)'를 강조하였던 조선 후기 사회와는 달리 유불(儒佛) 상보적인 경향이 강하였다. 이언적도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고향인 양좌동(良佐洞) 인근에 소재한 유서 깊은 정혜사를 자주 출입하면서 독서의 장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sup>0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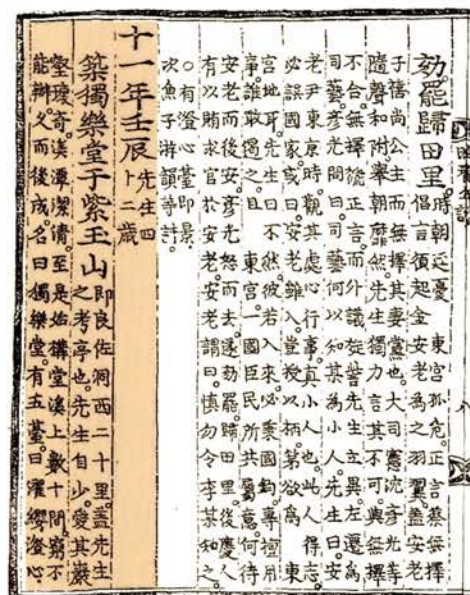
이언적은 이러한 어릴 때 인연으로 1532년(중종 27)에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가 파직 되자 이곳으로 낙향하여 독락당(獨樂堂)을 창건하고 약 5년간 머물렀다. 그때의 상황을 『회재집(晦齋集)』 연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생은 젊어서 그곳의 바위 골짜기가 괴기하고 시내뭇이 청결한 것을 사랑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시냇가에 집을 지으니 수십 칸이었다. 가난하여 공사를 할 수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 완공하니 독락당이라 이름 하였다. 다섯 대를 두고 탁영대(濯纓臺)·징심대(澄心臺)·관어대(觀魚臺)·영귀대(詠歸臺)·세심대(洗心臺)라 하였다. 또 관어대 위에 작은 정자를 세우니, 제 1칸은 정관재(靜觀齋), 제 2칸은 계정(溪亭)이라 하였다. 정자의 전후에 소나무·대나무·꽃과 풀을 심고 날마다 그 사이에 읊조리고 노닐면서 뉘시하며 세상의 어지러움을 사절하였다. 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도서를 좌우로 하고 조용한 가운데 공부를 하니 전에 비하여 더욱 깊고 오로지 하였다.

처음에는 계정 자리에 3칸의 락집(茅屋)을 지었는데, 뒤에 정혜사 주지의 주선으로 락집을 헐고 계정과 양진암, 옥산정사를 잇달아 지었다. 이언적은 이곳의 자연 승경을 좋아해 독락당 계정 옆으로 흐르는 자계천 주변의 몇몇 바위를 징심대·탁영대·영귀대·관어대·세심대라 명명하고, 이들을 둘러싼 자옥산·화개산(華蓋山)·무학산(舞鶴山)·도덕산(道德山) 등 네 산도 본인이 직접 명명하였다. 화개산 북쪽 끝자락에는 자계천의 원천이 있는 안태봉이라는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범바위와 사자바위도 이언적이 지은 이름이다.



회재집 2



회재집 1

01 이수환, 『경주 회재 이언적 증가』(예문서원, 2011)





1. 세심대 洗心臺
2. 퇴계 이황의 글씨인 세심대













계정을 받치고 있는 반석이 관어대이고, 계정 맞은편 화개산 허리를 휘어 두른 병풍석이 영귀대이다. 영귀대에는 연당淵堂이 있는데, 이 연당은 이언적의 뜻을 받들어 서자 전인全仁이 만든 것이다. 세심대는 지금의 옥산서원 밖 북쪽 일대의 바위를 가리킨 것이다. 세심대 옆 외나무다리 밑에는 작은 폭포를 이루는 못[沼]과 용추龍湫가 있어 운치를 더하고 있다. 세심대는 정조가 이언적의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의 서문을 짓고 지방 초시初試를 개최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 바위에 새겨진 ‘세심대’와 ‘용추’는 퇴계의 글씨이며, 퇴계는 양진암과 옥산정사의 현판을 쓰기도 하였다. 계정과 독락당의 현판은 각각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과 이산해李山海가 썼다.

독락당 동쪽에 있는 향나무는 이언적이 독락당의 낙성을 기념하여 심은 것이고, 뒤에는 이언적이 손수 심었다는 산수유나무와 주엽나무(천연기념물 제 115호)가 있다. 그 중 주엽나무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이언적이 손수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주엽나무는 높은 기상을 품은 지사志士들이 모여 담론을 하면서 뜻을 살찌게 한다는 고사를 지닌 나무이다.

낙향 이후 이언적은 독락당과 계정을 짓고 이곳에서 도학과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많은 시를 남겼다. 이언적의 대표적인 시인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도 이곳을 배경으로 지은 것이다. 독락당은 이언적의 사후 서파庶派, 전인계全仁系(이전인李全仁, 1516~1568)로 계승되었다. 현재 이곳에는 이언적의 수필문적手筆文籍과 각종 유물 등이 독락당에 보관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이언적이 26세에 지은 「원조오잠元朝五諫」을 퇴계가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쓴 「퇴계 유묵遺墨」과 이언적이 명명한 사산오대를 반석에 새겨놓기 위해 쓴 퇴계의 글씨가 있다.

옥산별업은 이후 아들 손자로 세전되면서 중수·확장되었다. 이언적 사후 서자 이전인은 그의 수필문적을 보관하기 위해 독락당 뒤편에 어서각御書閣과 사당을 세우고 안채를 중수하였다. 이후 독락당의 안채는 서손庶孫 이준李浚에 의해 다시 중수되었다.

이언적 사후 그의 발자취를 쫓아 여러 인사들이 옥산에 왕래하였으며, 많은 기록을 남겼다. 특히 이언적의 업적과 옥산의 자연경관을 노래한 시문이 많이 남아 있다. 노수신은 옥산을 유람하고 14가지 산수를 시로 읊었으며, 박인로朴仁老는 독락당을 방문한 뒤 가사 「독락당가獨樂堂歌」를 읊었다. 특히 퇴계의 후손인 이가순李家淳은 19세기 전반 옥산서원을 방문한 뒤 이언적의 은거지에 구곡원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옥산서원 일대를 유람하고 ‘옥산구곡玉山九曲’을 설정하였다. 이가순이 설정한 아홉굽이는 이언적의 자취가 남아 있는 굽이로, 대부분 이언적이 명명한 굽이었다. 구곡은 제 1곡 송단松壇, 제 2곡 용추龍湫, 제 3곡 세심대, 제 4곡 공간孔澗, 제 5곡 관어대, 제 6곡 폭포암瀑布巖, 제 7곡 징심대, 제 8곡 탁영대, 제 9곡 사암獅巖이다. 이가순은 옥산천 일대에 구곡을 설정하여 이 일대를 주자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비견되는 공간으로 만들려 하였던 것이다.<sup>02</sup>

## 2) 옥산서원의 연혁

조선에 있어서 서원제도는 주세붕에 의한 백운동서원의 설립으로 출현되었지만 이후 조선사회에 보급, 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에 의해서였다. 당시 퇴계는 조광조의 도학정치론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또 이를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조하고 그 자신이 이를 열열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하여 사림의 향촌에서 기반확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받았고 이후 그의 문인들과 함께 서원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중종이후 명종대까지 세워진 퇴계 주도하의 초창기 서원은 집권 훈구파의 견제속에서도 어디까지나 교육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해 나갔다. 훈구파의 입장에서 이 시기 피폐된 향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설치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서원의 제향자는 사림세력 자체의 기준으로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상인물이 없을 경우는 사묘祠廟없이 출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이 시기 서원의 설립이 존현보다는 강학에 일차적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사림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선조대에 이르러 서원은 명종대에서의 일정한 제약에서 벗어나 사림의 활동기반으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선조대에 오면 이미 수적으로 서원은 60여개를 넘으면서 제향자도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등 사화기에 피화된 인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범위가 이황·이이·조식 등 이 시기 사림사이에 형성된 학파의 영수 및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사림은 서원의 제향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도학적 정통을 천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일정하게 강화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서원의 발전은 이 시기 사림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봉당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옥산서원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건립되었다. 특히 제향자인 이언적이 당시 사림파의 도학적 정통의 계승자로 천명됨에 따라 이 시기 그를 위한 서원의 건립은 당연한 일이었다. 옥산서원은 이언적 사후 19년 후인 1572년(선조 5)에 그의 평소 장수지지藏修之地인 경주부 북쪽 50여리의 자옥산紫玉山 아래에 건립되었다.

옥산서원의 창건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여타 초기 서원의 창건과정과 유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옥산서원은 당시 경주부윤慶州府尹 이제민李齊民이 권덕린權德麟 등 향중의 사림 13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경상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 임설任說이 예조에 장청狀請하여 창건하였다.<sup>03</sup> 그 과정에서 부윤 이제민과 후임인 박승임朴承任은 서원 창건에 소요되는 재목과 물질을 기부하고 또 친히 터를 잡고 인부를 고르는 등 창건역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 특히 이제민은 서원 인근의 정혜定惠·두덕斗德 두개의 사원 및 사기沙器·수철水鐵·야철冶鐵 각 점店을 서원에 소속시켜 그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에

03 이수환 편저, 『玉山書院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3(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향촌내 유사<sup>儒士</sup>들이 진력하여 1572년(선조 5) 2월에 일을 시작하고 8월에 사우<sup>祠宇</sup>와 강당<sup>講堂</sup>, 동·서재<sup>東·西齋</sup> 등 총 40여 칸이 완성되었다.<sup>04</sup>

04 『列邑院宇事蹟』 5책, 경상도 경주판(옥산서원 조)

서원건물이 완성되자 다음 해 2월 16일에 인근 서악<sup>西岳</sup>, 향현사<sup>鄉賢祠</sup>에 봉안되어 있었던 회재의 위패를 모셔와 처음으로 향사를 행하였다. 12월에는 감사 김계휘<sup>金繼輝</sup>가 사액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올려서 ‘옥산<sup>玉山</sup>’이라는 편액과 서책을 하사받았다. 서원의 이름을 ‘옥산’이라 한 까닭은 자옥산 기슭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 편액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가 교서를 받들어 썼으며 1574년(선조 7) 5월에 계액<sup>繼額</sup>하였다. 이후 1839년(헌종 9)에 강당인 구인당의 화재로 편액이 소실되어 다시 사액을 받았는데, 이때는 당대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sup>秋史 金正喜</sup>가 썼다.

원래 회재의 위패는 그가 졸<sup>卒</sup>한지 15년 후인 1568년(선조 원년), 당시 경주부내에 처음으로 건립되었던 서악서원에 별묘<sup>別廟</sup> 형태로 먼저 봉안되어 있었다. 회재의 주향<sup>主享</sup>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에 위판이 서악서원에 먼저 봉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선조 원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회재가 신원되어 정통 성리학의 계승자로 인정되자 향중 유림들의 입장에서는 서원유무와 관계없이 어떻게든 향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기존 서원 내 별묘 형태의 향사는 타 서원에서도 확인된다. 서악서원에 봉안시 제문은 부윤 유순선<sup>柳順善</sup>이 지었고,<sup>05</sup> 서원의 창건과정은 회재의 문인인 권덕린과 서손<sup>庶孫</sup>인 이준<sup>李浚</sup>의 노력에 의해 당시 대사성이었던 허엽의 기문으로 정리되었다.

05 『院規』(良洞 晦齋宗孫宅 소장) 末尾

옥산서원은 창건과 동시에 서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확보에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주 읍인<sup>邑人</sup>의 협력하에 경주에 토지 약간을 두었으며, 또 당시 청도<sup>淸道</sup>·경산군수<sup>慶山郡守</sup>를 역임하였던 이언적의 서손인 이준이 청도·밀양전 약간을 납입하는 등 설립초기에는 전<sup>田</sup>이 300여곡<sup>斛</sup>[1곡=10두, 200석]이나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경제적 기반 확보에는 앞에서 언급한 이재민의 조치를 비롯하여 1578년(선조 11)에는 고직<sup>庫直</sup>·도척<sup>刀尺</sup>·반모<sup>飯母</sup>·각<sup>各</sup> 1구와 속공비<sup>屬公碑</sup> 14구가 이속되는 등 특히 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볼 때 옥산서원은 제향자의 내외손, 향촌사람, 지방관의 상호협조하에 설립되고 그 경제적 기반 또한 그들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옥산서원은 당시 조선왕조의 서원진흥책에 힘입어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제향자인 이언적이 1610년(광해군 2)에 동방 5현 중의 한 분으로 문묘<sup>文廟</sup>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여진다. 동서·남북 분당 이후에는 이언적이 이황과 함께 남인의 정신적 지주로 부상하자 옥산서원은 퇴계를 봉향하는 예안의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2대 서원으로 자리잡았다.

옥산서원은 설립 후 경주권내 수원<sup>首院</sup>으로 유생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위치에 있었다.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 유림들은 당시 영남학파를 대표하고 있던 정구<sup>鄭逵</sup>와 장현광<sup>張顯光</sup> 등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이언적의 학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물을 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1611년(광해군 3)에 북인의 영수였던 정인홍<sup>鄭仁弘</sup>이 중심이 되어 영남학파의 도통을 이루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쓴 구인당(求仁堂) 편액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를 반대하자, 이를 반박하는 「무훼회퇴소(無毀會退疏)」를 올리는 데 참여하였고, 효종대에는 이언적의 후손인 이채(李埰)와 이력(李穡)이 기호학파의 종장(宗匠)이 되는 성혼(成渾)·이이(李爾)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때 경주 사림 16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 중 이채는 경주권 사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1669년(현종 10) 『동경잡기(東京雜記)』를 편찬하기도 했으며, 1679년(숙종 5)에는 향중 사림과 함께 『경주향안(慶州鄕案)』을 개수하고 그 서문을 썼다. 옥산서원 유림들은 이후에도 경주권을 대표하여 1736년(영조 12) 노론 인사 송시열(宋時烈)의 문묘종사반대 영남유소, 1792년(정조 16)과 1855년(철종 6) 사도세자의 신원을 청하는 영남만인소에 적극 참여하였고, 1884년(고종 21)에는 복제개혁(服制改革)에 반대하는 만인소를 주관하였다.

옥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치는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방명록인 『심원록(尋院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옥산서원은 조선시대 영남 남인을 대표했던 서원답게 『심원록』을 통해서 보면 서울과 지방의 남인계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세기에는 류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박승임(朴承任)·금응상(琴應爽)·금난수(琴蘭秀)·이영도(李詠道)·정사성(鄭士誠)·권문



해權文海·박의장朴毅長 등 당시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퇴계 제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허엽許曄·이항복李恒福·이원익李元翼·이덕형李德馨 등 서울에 거주하는 현직 관료들도 다수 방문하였다. 17세기 이후에도 최현崔愼·황여일黃汝一·이정신李廷臣·이민원李民寬·한준겸韓浚謙·조경趙綱·이현일李玄逸·이형상李衡祥·정시한丁時翰 등 서울과 지방 중요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옥산서원은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당시 중앙정계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 남인의 정치적 명분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상호 결집을 도모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은 여타 영남의 남인계 서원과 마찬가지로 인조반정·갑술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의 실세가 굳어지자 집권서인 내지 노론계 서원에 비해 원세院勢의 확장이 상당히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옥산서원이 중앙정계로부터 다시 주목받는 것은 영·정조대이다. 영·정조 두 왕은 『대학』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때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의 결유된 부분을 보완하여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를 다시 편한 이언적의 학문이 주목되면서 그를 봉양하는 옥산서원도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sup>06</sup> 정조는 회재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자朱子이후의) 후학으로 받들어 잇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 주자의 식해識解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데 선정先

정의 대학에 대한 것은 바로 주자를 선학善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sup>07</sup>

06 李泰鎮, 「正祖의〈大學〉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대동문화총서 11, 1992)

07 『弘齋全書』 권55, 잡저

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추로지사鄒魯之士들이 그를 본받을 것을 당부해 마지 않았다. 이러한 정조의 회재에 대한 존경의 뜻은 그 1781년(정조 5) 4월에 옥산서원과 이황을 모시는 도산서원에 관리를 보내 치제致祭토록 하는 형태로 표시되었다. 이 일에 대해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일찍이 했어야 할 일이면서도 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서 서둘러 하도록 조치하였다.<sup>08</sup> 이때 그 제관의 사품祀品을 연전年前의 화양서원華陽書院 치제시致祭時의 예에 의하도록 한 것은 서인·노론 측과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배려의 표시였다.

08 『正祖實錄』 권11(정조 5년 4월 병인)

정조는 영남인재의 등용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함과 동시에 영남출신의 뛰어난 선정先正臣의 한 사람으로 회재를 특별히 존송하였다. 예컨대 영남출신 선정신에 대해 평가하면서 퇴계보다 회재를 더 앞세우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1781년(정조 5) 4월 치제의 경우도 당초에는 옥산서원의 치제만 거론되었는데 옥산서원에 치제하면서 도산서원을 빠트릴 수 없다고 하여 치제관이 돌아오는 길에 도산서원에 들리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 이후 1791년(정조 16) 3월에도 옥산·도산에 치제하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때는 도산서원에서 교남빈흥과嶠南賓興科가 시행되는 특별한 일이 있었지만 치제의 순위는 옥산서원이 먼저였다. 이때 내려진 교문敎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학<sup>正學</sup>을 받들고자 하면 의당 선현을 받들어야 한다. 며칠 전에 옥산서원에 제사를 올리라는 명을 내렸는데 옥산에 행하면서 도산에 행하지 않으면 옳겠는가? 요즈음 사학<sup>邪學</sup>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데 오직 교남<sup>嶠南</sup>의 인사들은 선정의 학문을 근수<sup>勤守</sup>하여 흔들리지도 빼앗기지도 않고 옛 것으로 스스로 바로 하여 나의 큰 사모를 한층 더해준다. 각신<sup>각신</sup> 이만수<sup>李晩秀</sup>는 명을 받들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현의 선정 문순공<sup>文純公</sup>의 서원으로 달려가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제문은 지어서 내린다. 선정의 자손 및 가까운 고을의 인사들로서 참여할 자들은 미리 모여 치제일을 기다리고 각신은 전교당<sup>殿敎堂</sup>에 자리를 잡고 제생<sup>諸生</sup>을 불러 들인 다음 진도문<sup>進道門</sup> 내정<sup>內庭</sup>에 서서 가지고 간 서제<sup>書題</sup>를 게시하여 각기 응제<sup>應製</sup>토록 하고 시험지는 거두어 조정에 돌아온 날에 보고토록 하라.<sup>09</sup>

09 『嶠南濟興錄』 및 『正祖實錄』 권34(정조 16년 3월 신미)

그 1794년(정조 18) 봄에는 「제선정회재속대학혹문권수<sup>題先正晦齋續大學或問卷首</sup>」를 지어 옥산서원에 보내 이를 소장하게 하였다.<sup>10</sup> 이 제사<sup>題辭</sup>는 1792년(정조 16) 치제 때 이만수가 이항의 수간<sup>手簡</sup>과 함께 속대학혹문을 가져온 것을 돌려보내면서 붙인 것으로 이때도 회재의 것이 먼저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옥산서원은 서원운영에 필수적인 경제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지역내에서의 위치도 더욱 확고해졌다. 실제로 19세기 이후 원속<sup>院屬</sup>·정혜사 등의 면역이 문제가 될 때마다 서원측에서 이것은 정조가 획급 또는 획정해 놓은 것이라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10 『弘齋全書』 권55, 잡저

영·정조대의 회재 학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옥산서원에 대한 특별 대우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등용으로도 나타났다. 영조는 회재의 후손인 이헌묵<sup>李憲默</sup>을 세손<sup>世孫</sup>의 춘방관<sup>春坊官</sup>·弼善<sup>弼善</sup>으로 등용하고, 또 그에게 옥산서원의 계산<sup>溪山</sup>의 승경<sup>景勝</sup>을 물은 뒤 감사로 하여금 도산서원의 예에 따라 그림을 그려 올리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sup>11</sup> 정조 또한 후손인 이정규<sup>李鼎規</sup>를 등용하였다.

11 『英祖實錄』 권102(영조 39년 8월 기유)

창건 이후 옥산서원의 변천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원래 각 서원에는 서원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한 고왕록<sup>高往錄</sup>이 있는데, 옥산서원도 원래는 초기 고왕록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19세기 고왕록 1책(1816~1873년)만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옥산서원은 18세기까지 대대적인 중건·중수는 없었고 단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이 퇴락하면서 간단한 보수 정도는 수시로 있었다고 보여진다.

19세기 이후 옥산서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1834년(순조 34) 서원 수호사로서 서원경제에 중요한 일조를 하였던 정혜사의 화재사건과 1839년(헌종 5) 강당인 구인당 화재 사건을 들 수 있다. 정혜사는 서원소용의 종이·신발 및 각종 현물 등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재의 문집·판각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화재로 문집·판각은 불타버렸고, 원임<sup>院任</sup>에 의해서 화재를 면한 이언적의 수서유적<sup>手書遺蹟</sup>과 판본은 각각 서원내 경각<sup>經閣</sup>과 북재<sup>北齋</sup>에 옮겨 보관하였다. 1839년(헌종 5) 정월 28일에는 구인당에 화재가 일어나 강당(5가<sup>架</sup> 10간)이 모두 불탔다. 특히 이 날의 화재로 서원에 소장하고 있던 선조 때 이산해가 쓴 사액



판額板, 숙종조 전교등서판傳敎廳書板, 영조조의 비망기판備忘記板, 정조조의 어제제문판御製祭文板 및 백록동규판白鹿洞規板, 본원원규판本院院規板, 한석봉이 쓴 구인당·양진재·해입재 3판이 모두 소실되었다. 구인당은 곧바로 후손과 향중사림 및 도내의 각 향교·서원·사우, 문중 등의 기부로 증건되어, 같은 해 12월 13일에 치제하여 다음 해인 1840년(헌종 6) 3월 6일에 고유제를 행하고, 7일에 액판額板을 걸었다. 이때 어제제문판御製祭文板도 같이 걸었다.

이후에도 서원 중건·중수는 계속되었는데 1843년(헌종 9) 9월부터 1844년(헌종 10) 9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무변루無邊樓를 중수하였고, 1905년에는 체인묘體仁廟의 중수가 있었다. 이후 일제시대에는 서원재정으로 옥산국민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도 하였다.

### 3) 옥산서원 소장 문적

옥산서원은 우리나라 어느 서원보다 많은 고서古書와 고문서, 임금이 보낸 편지 등 많은 문헌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고 보존 상태도 좋다. 특히 실질적인 서원의 운영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고문서와 이언적이 학문을 연마하면서 본 책과 선사본宣賜本: 국가에서 내려준 책 등의 고서는 학술적 자료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아주 크다. 이 고서들은 곧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완본 9권)는 이미 보물 제 525호로 지정되어 있다.<sup>12)</sup>

12 이수환, 『경주 회재 이언적 총가』(예문서원, 2011)

옥산서원 옆에 소재한 독락당에는 이언적과 관련한 많은 문적이 소장되어 있는데, 『정덕계유사마방목正德癸酉司馬榜目』(1513년 이언적이 포함된 사마시 합격자 명단, 을해자)은 보물 제 524호, 『해동명적海東名蹟』, 『원조오잡元朝五臈』 등은 보물 제 526호, 또 이언적이 1547년(명종 2)부터 1553년(명종 8)까지 걸쳐 쓴 진필저술인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등 13책은 '이언적수필고본일괄李彦迪手筆稿本一括'로 보물 제 586호로 지정되어 있다.

옥산서원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책들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옥산서원 책은 서원 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뜻의 '서원서책불출문외書院書冊不出門外'라는 이황의 글을 적은 편액을 만들어 경서각經書閣 앞에 걸었고, 독락당 어서각御書閣 앞에도 관찰사가 서책을 문 밖으로 가지 못하게 못하도록 지시한 편액이 걸려 있었다. 또한 정조도 옥산서원이 소장한 책을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어명을 내린 적이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도 많은 책과 유품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적들은 원래 서원내 경각經閣에 보관해 왔으나, 건물이 낡아서 더 이상 제대로 된 보관이 어려워지자 1972년 후손들이 새로 세운 청분각淸芬閣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2010년에 다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건물을 지어 보관하고 있다. 옥산서원 소장 중요고서와 고문서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고서

옥산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경주지역 유림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역할하였다. 특히 지방 관학인 향교가 재지사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역할은 더욱 커졌다. 옥산서원의 유생 선발은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재주있는 학생을 먼저 선발하여 시험을 거친 후, 천거자의 천거를 받아 가부可否를 물어 유적儒籍에 이름을 올렸다. 천거자는 유생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추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옥산서원은 이렇게 선발된 유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유생의 자발적인 공부와 이들에 대한 교수 및 정기적으로 개설되었던 강회講會·거접居接: 일 정기간 독서와 제술을 시키는 것 또는 지방관의 주관하에 개설되는 백일장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옥산서원은 이러한 유생들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경주지역 유림들의 공부를 위한 도서관적 역할 및 유생교육을 위한 교재·문집 등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며 지방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옥산서원은 사액과 동시에 조정으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하사받았고, 1577년(선조 10) 8월에 『사서육경四書六經』 각 2질,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유선록儒先錄』 각 1질을 하사받았다. 1588년(선조 21)에는 『언해소학諺解小學』 1질을, 1590년(선조 23)에는 『사서언해四書諺解』 각 1질을 하사받았다.<sup>13</sup> 또한 자비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여 약 5,000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은 서책출판을 전담하는 간소刊所를 별도로 설치하여 『회재집晦齋集』과 『무침당집無忤堂集』 등 많은 서책을 출판하였다.

옥산서원 소장 고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현재 보물 제 525호로 지정된 『삼국사기』이다. 옥산서원 소장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 경, 경주부가 인출하여 옥산서원에 보내준 것으로, 현재 전래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삼국사기』 완질본 가운데 하나이다. 『진서晉書』·『비아碑雅』·『당류선생집唐柳先生集』·『한서漢書』 등은 갑인자甲寅字로 간행된 고서이며, 『대광익회옥편大廣益會玉篇』·『번역소학翻譯小學』·『소학집설小學集說』·『주자대전朱子大全』 등은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고서이다. 갑인자와 을해자는 모두 조선 전기 대종을 이루던 금속활자로 널리 이용되었다. 특히 『한서』의 경우 이언적의 수택본手澤本으로 알려져 있다.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는 1434년(세종 16) 경주부에서 간행한 것이며,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은 1579년(선조 12) 옥산서원에 내려진 내사본이다. 이상과 같이 옥산서원에는 희소성이 있는 17세기 이전 간행 고서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

## (2) 고문서

옥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원본류와 고문서는 조선시대 서원과 향촌사회의 구체적

13 『列邑院宇事蹟』 5책, 경상도 경주판(옥산서원 조)



인 실상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대원군의 서원 훼철 때 대부분의 서원이 보유하고 있던 일차자료가 유실된 반면, 옥산서원은 훼철을 피하여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훼철을 피한 다른 서원도 많은 일차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옥산서원 소장 자료는 그 양과 자료적 가치면에서 타 서원에 비해 월등히 앞선다.

필사원본류 가운데 『고왕록 考往錄』은 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비록 19세기에 작성된 것이나, 이 책을 통해 서원 초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심원록 尋院錄』은 옥산서원 내방인사가 자필 서명한 일종의 방명록으로 옥산서원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림세력의 범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옥산서원의 『심원록』은 타관 他貫·본향 本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며 전자는 천자문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세기 초까지 총 103책이 전한다. 타관을 입록한 『심원록』에는 당대 중앙의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타 지역 저명인사들의 성명과 서명이 기입되어 있다. 『본향심원록 本鄕尋院錄』은 1756년(영조 32)에 처음 작성되어 총 48책이 전해지는데, 당시 경주 지역을 대표하던 재지사족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각종 등록 騰錄·완의류 完議類는 옥산서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성된 공문서와 규정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먼저 『정서등록 呈書騰錄, 1588~1623』은 서원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 유 院儒들이 감사나 해당지역 지방관에 올린 상서 上書 내지 소지 所志 등을 엮은 것이다. 대부분은 서원의 소속사찰인 정혜사 소속 승려의 승역 僧役 면제, 현물관납 現物官納 면제, 선척 船隻·어염세 魚鹽稅 면제, 어부 漁夫·격군 格軍·염간 鹽干 등 원속의 면역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그 외 『등록 騰錄』, 『산당거점등록 山堂居接騰錄』, 『중수소별관완의 重修所別完議』 등은 경제적 사정과 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엮어 놓은 것이다.

옥산서원 소장 자료 중 가장 많은 것은 토지·노비·원속안 院屬案 및 각종 회계록 會計錄·도록 都錄 등 서원경제 관련 자료이다. 서원 초기 2대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였는데, 이와 관련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토지안 土地案은 1694년과 1795년의 2책이 있으며, 추쇄안 推刷案을 포함한 노비안은 시대별로 7책이 있다. 그리고 토지안과 관련하여 18세기 중후반의 추수기 秋收記와 타작기 打作記가 전해진다. 서원은 노비 외에 모입 募入·투탁 投託·양속인 仰屬人 등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피역인들을 광범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 원속안으로, 옥산서원에는 해읍 該邑: 경주부내 원속안과 타읍 他邑: 영암·홍해·장기·영천 원속안이 전해진다. 또한 1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들 원속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원생안 院生案』, 『유생안 儒生案』 43책, 『양하전안 良下典案』 53책, 『어서각수직군안 御書閣守直軍案』 29책이 작성되었다. 이 안 案들은 1~2년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다.

서원의 수입·지출상황을 기록한 일종의 경리장부로는 회계록·도록·전여기 傳與記 등이 있다. 회계록은 18세기 초·중반, 도록은 18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까지 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총 130여 책이 전해진다. 이 책들을 통해 옥산서원의 대략적인 경제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간소刊所·유물遺物·식상도록食床都錄 및 중수시도록重修時都錄을 따로 작성하였다. 서원소장 서책은 따로 전여기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였는데 여기에는 서책 외에도 서원소장의 각종 기물 등도 기재하였다.

건물의 중수 등 각종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과정을 일기로 기록하였으며, 부조기扶助記·도록·하기下記 등도 반드시 작성하였다. 예컨대 1839년(헌종 5) 구인당 중건 당시에는『구인당중건일기求仁堂重建日記』,『강당중건시향중출물지부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중수전책重修錢冊』,『중수전봉상기重修錢捧上記』,『향중전입기鄕中錢入記』,『도내전입기道內錢入記』 등의 각종 기록물이 작성되었다. 1905년의 구인당 중건, 1843년(헌종 9)의 무변루 중건, 1905년의 체인묘 중건 때에도 이러한 기록물이 작성되었는데, 공사시의 각종 수입·지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옥산서원에는『방목榜目』,『도기到記』,『향회록享會錄』 및 각종 일기 등의 필사원본류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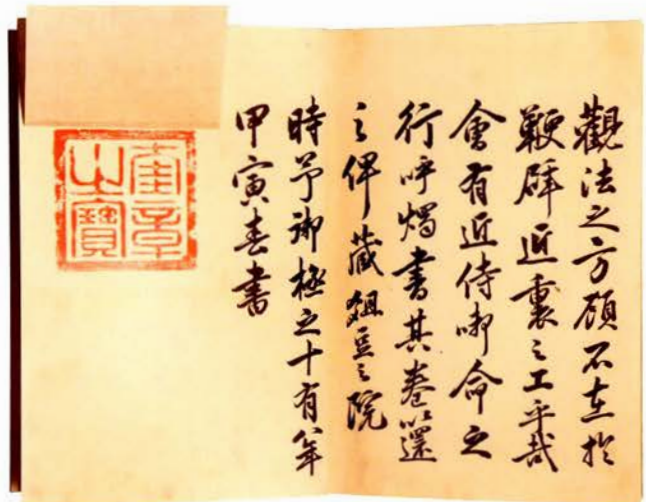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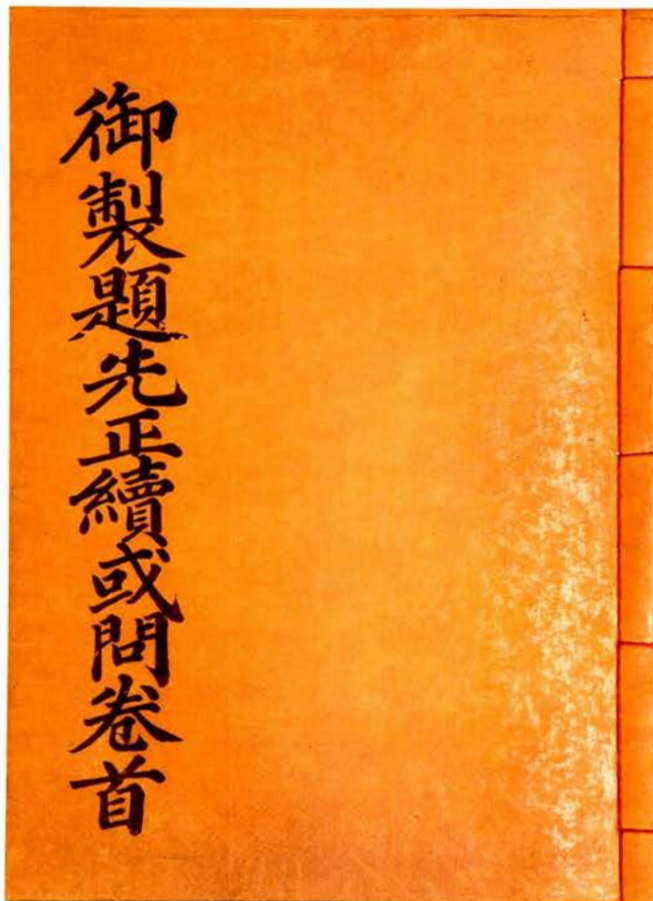
또한 옥산서원의 고문서는 서원의 사회·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먼저 호구단자戶口單子는 서원을 하나의 호戶로 파악하여 소속 노비를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 노비안과 더불어 서원소속 노비의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명문明文은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옥산서원 토지매매 기록이 주를 이룬다. 천안典案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 사이의 것인데, 입원入院 유생의 명단·입격人格·필강畢講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강안講案에는 구체적인 교육평가가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서원의 교육적 기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밖에 각종 소지류所志類는 대체로 서원경제에 관한 것으로 속사인 정혜사승도의 면역, 원속 및 서원소속 각종 점賦 등에 대한 면역·면세를 호소하는 것이다.

통문通文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것이 대부분으로 발행처는 서원·향교 및 각 문중이며, 그 범위는 경상좌도에 집중되어 있다. 통문의 내용은 서원건립과 배향·추향문제, 도회道會 개최, 승무운동, 서원중수시 부조, 문집 중간 시 부조, 충효열에 대한 표창 문제 등이며,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적서積世 간·사족 상호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종 시비와 관련된 것이 많이 나타난다. 회문回文은 향례일·향회개최·수임首任 천망 등 원내 대소사가 있을 때 모임을 알리는 문서이다. 대체로 이 회문은 서원을 중심으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문중별로 돌렸다. 제수단자祭需單子는 서원 자비로 마련한 것 외에 부윤·감사 등 지방관이 하사한 각종 제수물자 품목이 기록된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단자와 간찰·계약서·영수증·위임증 등의 고문서가 확인되며, 현재까지도 서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완본 9권(보물 제 525호)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보물 제 586호)



續大學或問

續大學或問

或問大學一篇程子始有信而表章之又為之次其間  
編發其歸趣及朱子著章句雖本程子之意而至  
於更定錯簡則有異於程子之見何也曰天下之理雖  
聖人有不能盡者故有前聖之所未發而後聖發之者  
有前賢之所未言而後賢言之者程朱之學固無淺  
深高下之可言而所見不能無詳略異同程子教書  
發揮而朱子竟朱子更加參考而別為序次以盡  
其美而所以明道而主教也二子之見雖同有不同  
而不害且為一揆也  
或問聽訟一節鄭本發在止於信下程子進而置於終  
文之下朱子又置之傳三章之後別為一章以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

清序五倫

皇明第一恭軍新安

馬汝鳴和時偕

都統使梧里李元

戶曹判書李村金

求尋 乙未除日

接伴使李恒福

兼巡察使李用

丁酉李夏

領議政柳成龍 而見 戊戌 初七日

都元帥權 慄 庚辰

『심원록尋院錄』

#### 4) 옥산서원의 건물과 배치

옥산서원은 동·서·북 삼면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 트여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자계(紫溪)를 끼고 올라가다 보면 동구(洞口)가 열리는 곳에 서원이 자리하고 있다. 서원은 자계 일대의 세심대와 마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원에서 서쪽 앞으로 보이는 산은 자옥산이고, 서원 뒤 동북쪽에는 화개산, 서원 북쪽에는 도덕산이 위치한다.

서원 경내의 건물인 체인묘(體仁廟)·구인당(求仁堂)·양진재(兩進齋, 東齋)·해립재(海立齋, 西齋)·무변루(無邊樓)·역락문(亦樂門)은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명명하고, 현판은 목사(牧使) 한호(韓濩, 石峰)가 썼으며, 민구재(敏求齋, 東下齋)·암수재(闇修齋, 西下齋)는 대사성 허엽(許驥)이 명명하고, 현판은 승지 배대유(裵大維)가 썼다.

이러한 옥산서원의 건물들은 주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홀로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주변의 건물들과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어느 한 방향으로만 연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있는 주변의 다수 건물들과 밀접하고 다양한 연관을 가진다. 이러한 연관성은 건물 안에 있는 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방과 또 다른 방이 서로 연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연관성은 옥산서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다.

옥산서원의 공간은 무변루가 중심이 되는 출입 관련 시설, 강당을 중심으로 한 강의 관련 건물, 사당이 중심이 되는 제사관련 건물, 그리고 부속 건물의 4개 영역으로 나뉘며, 각 건물들은 전면에 강학공간을, 후면에 제향공간을 형성하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정문에서 차례로 문루·강당·사당의 건물이 일직선상에 놓여 중심축을 이루며, 각 공간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반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이다.<sup>14</sup>

서원의 각 당호는 제향자인 이언적의 유덕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그의 사상이 담겨있다. 서원의 외삼문인 역락문을 들어서면, 앞으로 작은 내가 흐르고 있는데 이곳을 건너면 문루인 무변루가 있다. ‘역락(亦樂)’은 『논어』의 「학이(學而)」편에 나오는 말로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언적의 학문과 도덕을 찬양하고 학문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의미이다.

정문인 역락문을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 2간에 2층으로 이루어진 누각으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이고 그 양측은 각각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며, 그 밖으로 좌우의 각 1칸에는 보침(補診) 형식으로 누마루가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대청은 외부 쪽으로는 벽체와 판문을 달아 공간을 제한한 반면, 강당 쪽으로는 트이게 하여 내부 지향적인 공간 구성을 하였다. 무변루 아래층의 가운데에는 문을 달았고, 양측에는 위층 온돌방의 구들과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무변루에는 석봉 한호가 쓴 ‘무변루’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본래 무변루의 명칭은 납청루(納淸樓)였는데 노수신이 이언적의 유적으로는 마땅치 않은 이름이

14 이상해, 『전통역사마을, 양동』(문화재청, 2010), 194~201쪽.





옥산서원 전경



라 하여 ‘무변’으로 바꾸었다. ‘무변’은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 周敦頤의 ‘풍월무변 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 그대로 서원 밖 계곡과 산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 경계를 없애는 곳임을 의미한다.

무변루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마당에 이르게 되고, 마당 정면에는 ‘구인당’이라는 당호의 강당이 있다. 구인당의 정면 좌측의 양진재와 우측의 해립재는 강당인 구인당과 함께 강학 공간을 이룬다. 대청 양측의 양진재와 해립재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대청을 통해 연결된다.

구인당의 ‘구인’은 이언적의 저술인 『구인록』에서 따온 것으로 성현의 학문이 오로지 ‘인’<sup>仁</sup>을 ‘구求’하는 데 있다는 회재 성리학의 핵심 사상을 의미한다. 구인당은 1839년(헌종 5) 강당의 화재로 중건되었고,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가운데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고, 양 옆칸은 온돌이 깔린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원장이 거주할 수 있는 방과 강의를 위한 대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면 방은 모두 마당을 향한 개구부가 없고, 양옆으로 개구부가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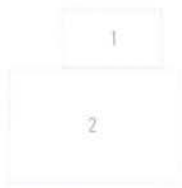
구인당의 좌측 협실인 양진재의 ‘양진’은 ‘명’<sup>明</sup>과 ‘성’<sup>誠</sup>을 갖추어 전진함을 말하는 것으로 명은 도덕을 밝히는 것 즉 격물치지 格物致知 한다는 뜻이고, 성은 의지를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해립재의 ‘해립’은 경건한 마음가짐과 신의로서 사물에 대처한다는 ‘경의해립 敬義階立’에서 취한 것이다.

구인당의 앞 좌우에는 원생들의 기숙사 격인 동·서재실인 ‘민구재’와 ‘암수재’가 있다. 두 건물 모두 맞배지붕으로 강당의 기단보다 낮은 단위에 있으며, 각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2칸의 대청과 3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재인 민구재의 ‘민구’는 『논어』의 「술이 述而」편에 공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서 배운 사람 好古敏以求之”이라고 했던 글에서 따온 것이고, 서재인 암수재의 ‘암수’는 주희가 스스로의 학문에 대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새롭고 밝게 학문을 펼쳐 나간다 闇然自修”고 한 문장에서 취한 것이다.

구인당 뒤편 높은 곳에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는 사당인 체인묘와 전사청이 있다. 체인묘는 옥산서원의 중심 전각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며 내부에는 이언적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향을 올리고, 봄·가을로 향사를 지내고 있다. 봄 향사는 음력 2월 중정일 中丁日, 가을 향사는 음력 8월 중정일에 지낸다. 체인묘의 ‘체인’은 어질고 착한 일을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로, 성리학의 중요사상 가운데 하나이며 이언적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전사청은 체인묘와 90°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인묘의 측면 폭을 고려하여 건물의 규모가 설정된 듯 하다.





- 1. 욕락문 亦樂門
- 2. 무변루 無邊樓















암수재閣修齋, 西下齋





민구재 敏求齋, 東下齋

체인묘의 서북쪽에는 서원을 세운 5년 뒤인 1577년(선조 10)에 건립된 신도비<sup>神道碑</sup>와 신도비를 보존하기 위해 지은 비각이 있다. 신도비는 기대승<sup>奇大升</sup>이 지었고 글씨는 이산해가 썼다. 이 신도비는 처음 옥산서원 앞 개울 위에 건립되었으나 이후 서원 경내로 옮겼다. 이언적의 신도비가 건립된지 9년 후인 1586년(선조 19)에는 기대승이 찬한 비명<sup>碑銘</sup>에 양좌동 출신인 성균진사 손엽<sup>孫晔</sup>이 쓴 신도비를 묘소 앞에 다시 세웠다. 이 두 신도비는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376-1, 제 37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 사당 담 밖의 남쪽으로 경각<sup>經閣</sup>이 있고, 서원 영역 남쪽으로 문집판각<sup>文集板閣</sup>, 고직사<sup>庫直舍</sup> 등이 있다. 고직사는 15칸이나 되는 고청과 서원청·창고·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다른 서원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다. 이러한 규모는 옥산서원의 경제적 규모를 유추하게 해 주고 있다.

경각은 임금에 보낸 편지와 글씨, 이언적이 직접 쓴 책과 왕실에서 내려 보낸 책 등을 보관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들 문적은 경각이 좁아 모두 보관할 수 없어 이언적의 문적은 따로 서원 소속사찰인 정혜사에 보관하고 승려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문집판각<sup>文集板閣</sup>은 각종 책들과 서화<sup>書畵</sup>의 판본 및 이언적의 문집 판본을 보관했던 곳이다. 여기 보관되어 있던 판본들은 책을 만들어 유림들에게 나누어주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경각과 문집판각에 보관되어 있던 서책과 유품들은 건물이 낡아서 더 이상의 제대로 된 보관이 어려워지자, 1972년에 후손들이 새로 청분각<sup>淸芬閣</sup>을 건립하고 옮겨 보관하였는데, 이후 2010년에 다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현대식 장서각인 청분각을 신축하여 보관하였다. 이 속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완본 9권(보물 제 525호) 등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전적과 유물들을 보관되어 있다.

옥산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정문에서 차례로 문·누·강당·사당 등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역락문에서 체인묘까지는 크게 4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 강학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낮은 단부터 진입·강학·사묘공간으로 1개의 축에 놓여있어 상·중·하의 위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제일 높은 곳에 사묘를 배치시킴으로써 성현에 대한 존엄과 외경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건물배치는 성리학의 근본개념인 '경학'의 공간이 위계적 질서체계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인묘(體仁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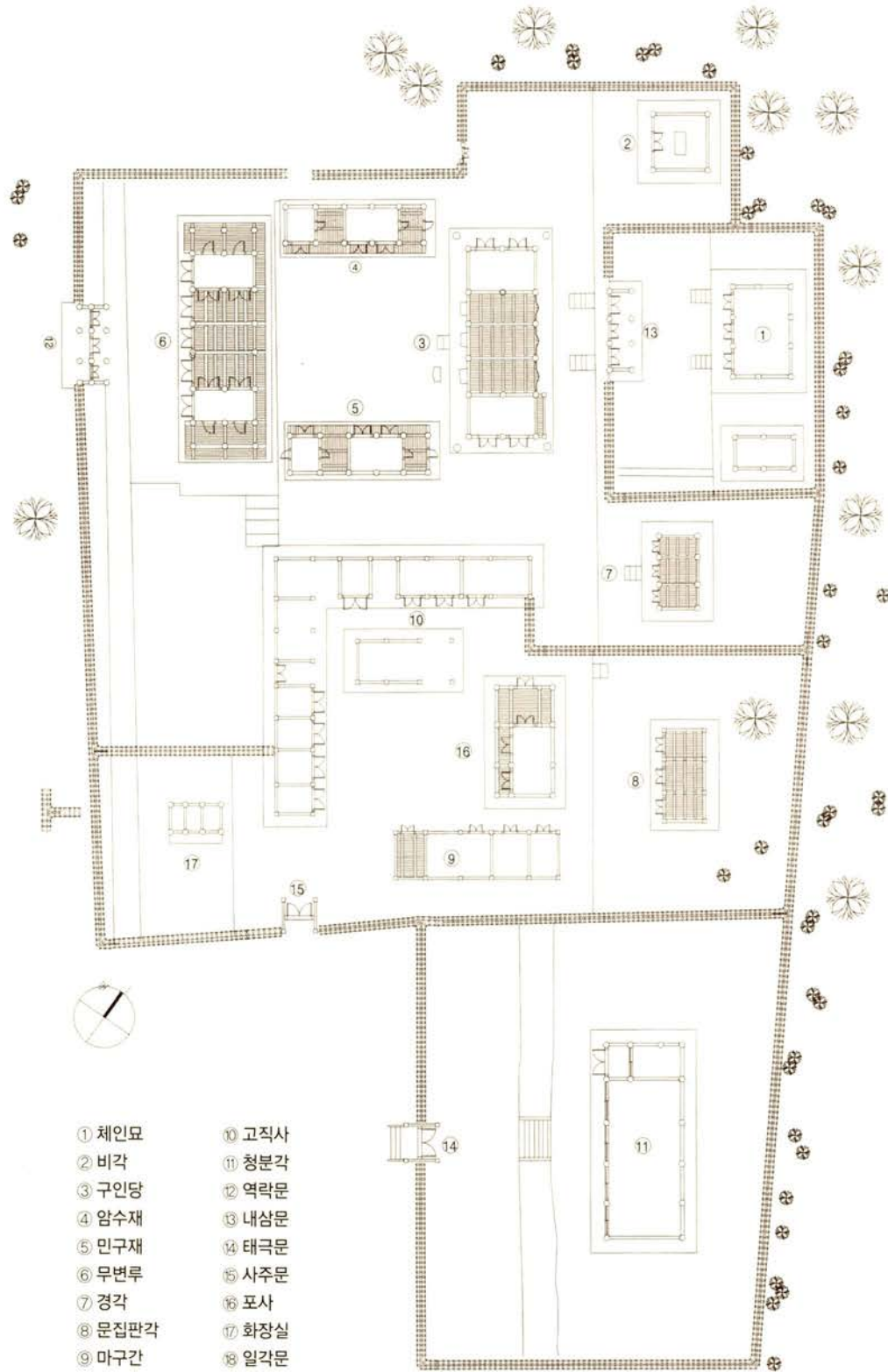




1. 이연적의 신도비 神道碑
2. 비각 碑閣
3. 경각 經閣







옥산서원 건물 배치도<sup>15</sup>

15 경상북도, 『慶北書院誌(개정판)』(2009)



## 5) 이언적의 생애와 사상

이언적은 선조 즉위 후 사람정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김굉필<sup>金宏弼</sup>·정여창<sup>鄭汝昌</sup>·조광조<sup>趙光祖</sup>·이황<sup>李滉</sup>과 더불어 '동방오현<sup>東方五賢</sup>'으로 추존되면서 조선 성리학의 적통을 계승한 인물로 확정되었다. 특히 김·정·조 선배 3현<sup>賢</sup>이 모두 별다른 학문적 저술을 남기지 못한 데 비해 이언적은 귀향처에서 많은 성리학적 저술을 남김으로서, 최초의 사람과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체계화를 달성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언적의 학문은 16세기 후반 조선조 성리학의 완성자인 퇴계로 이어지면서 사람파내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sup>16</sup>

이언적은 16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대표적인 사람파 관료이기도 했다. 동시대의 서경덕<sup>徐敬德</sup>이 대표적인 재야학자라고 한다면, 이언적은 이른바 참여정신이 투철한 관료학자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우주론·심성학 등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관학자다운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

이언적(초명은 적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자를 더하였음)은 자는 복고<sup>復古</sup>, 호는 회재<sup>晦齋</sup> 또는 자계옹<sup>紫溪翁</sup>이다. 1491년(성종 22) 11월 25일 경주부 양좌촌에서 아버지 성균생원 번과 어머니 경주손씨(적개공신 손소의 딸) 사이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57세 때 을사사화로 강계부에 유배되어 6년 뒤 1553년(명종 8) 63세의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이언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정치적 파란이 가장 심했던 시기의 하나인 사회기에 일생을 보냈다. 이언적이 일생을 보냈던 16세기 전반은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통치 질서의 누적된 모순으로 인해 동요·변화를 보이는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집권훈구세력이 점차 귀족화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권세가의 권력을 매개로 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더불어 대농민수탈이 강화됨으로써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러한 권세가의 농민수탈은 농민의 유망을 가져왔는데, 농민 유망에 따른 농촌사회의 동요는 중소지주층이 주류를 이루던 사람파의 재지적 기반을 위협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 사람파의 훈구파에 대한 공격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언적은 1514년(중종 9) 별시에 급제한 이래 내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펴나갔다. 이언적의 사환<sup>仕宦</sup>은 장년기에는 홍문관·시강원·성균관 등 문한직<sup>文翰職</sup>과 사헌부·사간원 등 언관직<sup>言官職</sup>을 역임하였다. 이들 직임은 국왕과 세자 가까이에서 학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였다. 이언적의 사환관은 선배인 조광조 등 기묘사람들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훈구·척신계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람파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향촌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도를 직접 강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의 왕정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성종대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향사례·향음주례의 보급운동으로 처음 시도되었으나 무오사화<sup>戊午士禍</sup>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 조광

16 이수환 편저, 『玉山書院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13(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이언적 위패





서백당(회재 이언적이 태어난 곳)





무침당(희재 이언적 종택)



조를 중심으로 한 기묘사람에 의해 향약보급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이 역시도 기묘사화로 전면 폐지되었다. 후자는 연산군의 폭정을 경험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 천하의 모든 일은 인주(人主)의 마음에 본원(本源)한다는 인식 아래 『대학』에 기초하여 군주를 성학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적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다.

이언적은 『소학』을 성학의 기초로 중요시 하였지만 치세의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에서 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1511년(중종 6) 21세 때 지은 「문진부(聞津賦)」에서 철왕(哲王)에 의한 제세(濟世)를 희구해 마지않는 뜻을 피력하였다. 기묘사화 후 2년 만에 국왕의 부름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그는 「이윤오취탕론(伊尹五就湯論)」을 지어 자신의 사환관을 재정리하였다. 즉 탕(湯)의 요청으로 개과천선에 이바지 하고자 폭군 겹(桀)에게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은 이윤(伊尹)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벼슬에 나가는 것은 자신도 이윤처럼 군주를 요순(堯舜)과 같이 되게 하고, 그 백성 또한 요순시대와 같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언적은 훈구·척신계의 사람파에 대한 위해(危害)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1531년(중종 26) 당시 조정 여론은 아들을 임금의 사위로 들여보내 중종과 사돈이 된 김안로(金安老)에게 세자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맡기자고 하였다. 하지만 이언적 만이 김안로가 소인임을 지적하여 반대하다가 좌천되었고, 얼마 안 가 다시 파직되어 향리로 낙향하였다.

47세 되던 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김안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 모의하다 발각되어 죽자 그 이듬 해 중종은 이언적을 가장 먼저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연관직에 포진한 후 사람파와 함께 언론활동을 통하여 천거과(薦舉科) 복설, 정치기강의 쇄신 등을 주장하였다. 48세 때에는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그 다음 해에는 단 1년간의 전주부윤 재직으로 송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539년(중종 34)에는 중종이 옛날의 진덕수(眞德秀)도 이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찬탄한 「일강십목소(綱十目疏)」를 왕의 뜻을 받들어 지어 올렸다. 이 소는 이언적의 정치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세계에 본원을 두면서 그간 김안로의 전횡에 휘말린 중종에 대한 엄격한 비판의 뜻을 담아 쓰여진 것이다. 중종은 이 소를 동궁과 외조(外祖)에 두루 보여 규범으로 삼게 하였고, 겹옷과 속옷을 한 벌씩 하사하면서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삼았다. 「일강십목소」는 임금 마음을 바로 잡는 일을 근본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목을 밝힌 것이다. 이후 그는 문한·연관직 및 육조·의정부 등의 당상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44년(중종 39)에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이 즉위함으로써 사람파는 좀 더 호전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중앙정부 구성상에 있어서 사람파의 비중이 좀 더 커진 것이 그러한 변화들 중의 하나이다. 이때 이언적은 권벌(權撥) 등과 함께 이상(貳相)의 직에 기용되었으며, 육조와 대간직에도 사람파가 다수 포진하였다. 이언적은 인종의 승하가 임박한 시점에 좌찬성에 올랐으나,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승하하자 정국은 다시 사람파에게 어려운 국면이 되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여 외척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



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외척은 장경왕후 章敬王后 소생의 인종을 지지했던 윤임 尹任을 중심으로 한 대윤 大尹과 문정왕후 소생의 경원대군 慶源大君을 지지하는 윤원로 尹元老·윤원형 尹元衡 형제를 중심으로한 소윤 小尹이었다. 양측은 서로 대립하다가 명종의 외척들이 간신들과 짜고 인종의 외척과 사림을 한데 묶어 몰아내기 위하여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을사사화 때 이언적은 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충순당 忠順堂에서 죄를 논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 자리에서 이언적은 “신하의 의리는 마땅히 임금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니 인종에게 벼슬하면서 마음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을 어찌 크게 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하였다. 이어 위사공신 衛社功臣에 봉해졌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소를 올렸다. 이언적의 이러한 처신에 대한 평가는 뒷날 크게 둘로 갈라진다. 이이와 그 문하생들은 윤원형 일파의 횡포에 강하게 맞섰던 권벌과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류성룡 柳成龍은 윤원형 일파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희생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여 교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며, 그런 점에서 권벌의 적극적인 대응보다 이언적의 현실적인 대응이 더 의미가 있다고 평하였다.

이언적은 이후 56세 때 판중추부사 判中樞府事로 있다가 이기 李訢과 윤원형 등의 참소로 관작을 삭탈 당하였다. 다음 해 을사사화의 소용돌이가 마무리 되면서 어린 명종 대신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문정왕후와 그 측근들을 비방하는 글이 양재역 벽에 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57세의 나이에 평안도 강계로 귀양을 갔다. 하지만 이 유배 기간이야말로 이언적에게는 학문의 깊이를 다질 수 있는 귀중한 시기였다.

유배지에 있으면서 59세 되던 해 『대학장구보유 大學章句補遺』와 『속대학혹문 續大學惑問』을 지었고, 60세 되던 해 8월 조선조 예학의 선구가 되는 『봉선잡의 奉先雜儀』를 완성하였으며, 10월에는 선현들이 인仁에 대해 말한 좋은 구절을 뽑아 모아서 해설을 붙인 『구인록 求仁錄』을 저술하였다. 또한 같은 해 나라를 다스리는 요점을 정리해서 임금에게 올릴 생각으로 『진수팔규 進修八規』를 지었고, 63세 되던 해 『중용구경언의 中庸九經衍義』를 저술하다가 완성을 보지 못하고 별세하였다.

이언적의 서자 전인 全仁은 강계에 함께 머물면서 아버지의 수발을 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을 배웠다. 그리고 이언적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해 왔다. 이언적이 죽은 뒤 전인의 요청으로 퇴계가 행장 行狀을 짓고, 선조는 즉위한 그 해 이언적이 남긴 글을 찾아 모으도록 명을 내렸으며, 이듬 해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에 추증하였다. 그리고 1569년(선조 2)에는 문원 文元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명종의 묘정 廟廷에 모셨다. 문원의 문元은 ‘도와 덕이 높으며 학문이 넓다’는 뜻의 ‘도덕박문 道德博文’에서 따왔고, 원元은 ‘의를 주로 삼아 덕을 행한다’는 뜻의 ‘주의행덕 主義行德’에서 따온 것이다. 뒷날 이언적을 문묘 文廟에 모시는 논의에서 이이와 그 제자들은 을사사화 때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처신과 경제에



관한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류성룡은 강직하게만 대처했다가는 사람들이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여 그렇게 처신한 것이라고 변호하였다. 이 같은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610년(광해군 2) 조선 초기 대표적 사람과였던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황과 함께 문묘에 모셔졌다.

이언적의 문집은 1574년(선조 7)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이 경상감사 노진(盧鎭)에게 건의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회재선생문집(晦齋先生文集)』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언적의 저술 가운데 먼저 주목할 것은 무극태극에 관한 논변이다. 이 논변은 한국유학사상 중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논쟁으로서 1517년(중종 12) 27세 때 있었던 셋째 외숙 망재 손숙돈(忘齋 孫叔墩)과 망기당 조한보(忘機堂 曹漢輔) 사이의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일찍이 진사시험에 합격한 나이 지긋한 학자들로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인물들은 아니었지만 경주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언적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 사우당(四友堂)을 통해 조한보가 손숙돈에게 보낸 편지를 얻어 보게 되었고, 그 글을 본 이언적이 두 사람 모두의 견해를 비판하는 논평을 썼는데, 그 글이 다시 사우당을 통해 조한보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조한보가 그 비평에 대한 반박 편지를 보내오면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조한보와 손숙돈 두 사람은 모두 노장적인 학문 경향뿐만 아니라 육象山(陸象山)의 학설과 불교적인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다. 본래 태극에 대한 논쟁은 주희와 육상산의 논쟁이 효시였다. 하지만 주희와 육상산의 논쟁이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었다면 이언적과 조한보의 논쟁은 만물의 본질인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깨달아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따진 논쟁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언적은 자신의 철학을 정립해 갔으며 아울러 한국 성리학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래서 퇴계는 이 논쟁에 대해 ‘위도(衛道)의 공이 크다’고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논쟁 과정에서 오간 이언적의 편지글은 선조 때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도 공맹의 심학(心學)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보기를 청하였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정도로 한국 성리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탁월한 글이다.

이 책의 시작은 이언적의 글 5편을 손자인 이준이 퇴계에게 보인 것이다. 이를 본 퇴계가 크게 찬탄하였고, 그 후 이준이 정구에게 비평을 청하였을 때 정구가 권하길 줄희와 육구연 형제 사이의 주록논쟁(朱陸論爭)과 함께 묶어 간행하면 주돈이(周敦頤) 이래 전개된 태극설의 정통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하여 간행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저술은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이다. 이 두 책은 이언적의 사상을 잘 드러내는 책으로 서로 표리가 되는 저술이다. 『대학』은 본래 『예기』 속에 들어 있던 한 편의 글이었는데 송나라 때에 이르러 성리학자들이 주목하면서 4서 가운데 한 권이 된 책이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이는 자신의 생각대로 순서를 바로 잡았으며, 주희 또한 순서를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정이의 주장을 바탕으로 124자의 글자를 새로 집어넣은 ‘격물보망장(格物補亡章)’을 만들어서



『대학장구』를 편찬하였다. 하지만 이언적은 주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순서만 바꾸어 『대학장구보유』를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대학』에 대한 이언적의 독창적인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속대학혹문』은 주희가 『대학혹문』을 지어 『대학장구』를 만든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처럼 『대학장구보유』를 만든 이언적 자신의 생각을 밝힌 책이다. 훗날 정조는 이 책을 간행하면서 직접 서문을 써서 앞에 붙였는데, 그 글에서 이언적의 저술 동기를 높이 사면서 '주희를 잘 배웠다'고 극찬하였다.

『중용구경언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관한 저술인데, '중용구경'이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한다. 『중용구경언의』는 매우 방대한 저술이지만 미완성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 『구인록』은 『논어』와 『맹자』를 비롯하여 유가의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인<sup>仁</sup>에 관한 견해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책은 인을 치국평천하의 근본으로 파악한 이언적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데, 사회를 겪은 입장에서 인의 실현을 통해 자신의 희망을 구체화해 보려 했던 노력인 셈이다.

『봉선잡의』는 조선 예학 발달의 선구가 되는 저술이다. 이 책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대본으로 하면서도 당시 행해지는 범절 가운데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덧붙였고, 아울러 『예기』와 여러 선현의 글 가운데 제례의 뜻을 잘 밝힌 것들을 합쳐서 완성하였다. 이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집안에서 이를 본 딴 저술들이 나왔다.

이상에 설명한 저술들을 볼 때 이언적의 학문은 독창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대학장구보유』와 『속대학혹문』, 『봉선잡의』 등에 보이는 것처럼 성리학에 침잠하여 정주<sup>程朱</sup>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답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을 펼쳤으며, 개인적인 도덕 수양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언적은 자신의 호인 회재와 이황의 호인 퇴계의 앞 글자를 따서 회퇴학파<sup>晦退學派</sup>라고 불릴 정도로 퇴계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영남 사람들의 성리학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퇴계는 이언적의 행장<sup>行狀</sup>에서,

선생은 따로 이어 받은 것도 없이 스스로 이 학문에 힘써서 남모르는 사이에 날로 드러나고 덕<sup>德</sup>이 행<sup>行</sup>과 부합하였으며 뚜렷이 문장으로 나타내고, 훌륭한 말을 후세에 남겼으니 이러한 분을 우리나라에서 구한다면 그에 짝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하였다. 이언적은 결국 퇴계의 적극적인 추존에 의해, 일국의 사람의 공론<sup>公論</sup>으로 종묘배향·문묘종사라는 신하로서, 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향유하면서 확고부동한 유현<sup>儒賢</sup>의 위치를 지키게 되었다.



옥산서원위차도(玉山書院位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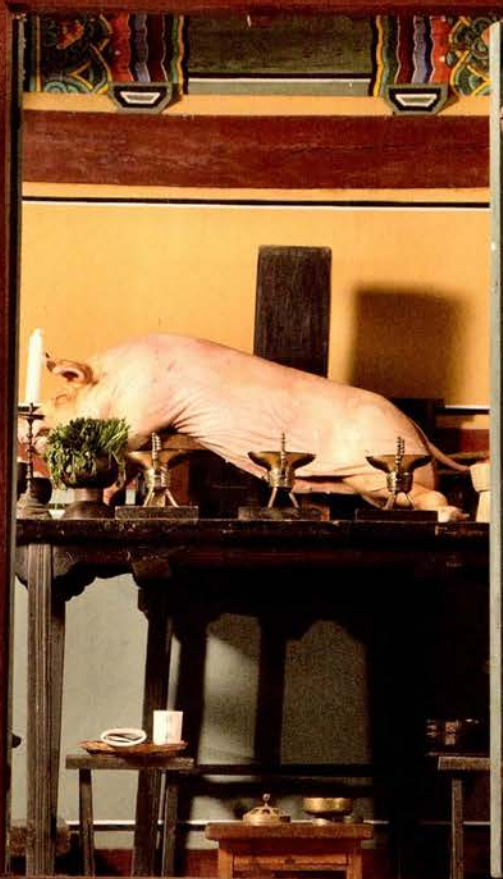
文元公晦齋先生

사당입구



# 體仁廟

生物之家在假而仁  
體之以身何不長人





謹



封



## 2. 옥산서원의 향사

### 1) 옥산서원 개요

사적 제 154호인 옥산서원(玉山書院)에는 회재(晦齋) 이언적의 위패(位牌)를 모신 사당이 있다. 옥산서원은 그가 죽은 지 19년이 지난 1572년(선조 5)에 경주부윤 이제민(李齊閔)을 비롯한 문인과 유림의 주도로 경주부 북쪽 50여리의 자옥산 아래에 건립되었으며, 다음 해 12월에 사액(賜額)되었다. 서원이 자리한 곳은 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인데, 이곳은 회재가 42세 때에 권신 김안로(金安老, 1481~1537)에 의해 파직된 후 낙향하여 기거하던 곳이다. 옥산서원은 주향(主享)인 이언적이 1610년(광해군 2)에 동방 5현의 한 분으로 문묘에 배향된 이후 그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어 퇴계를 봉향하는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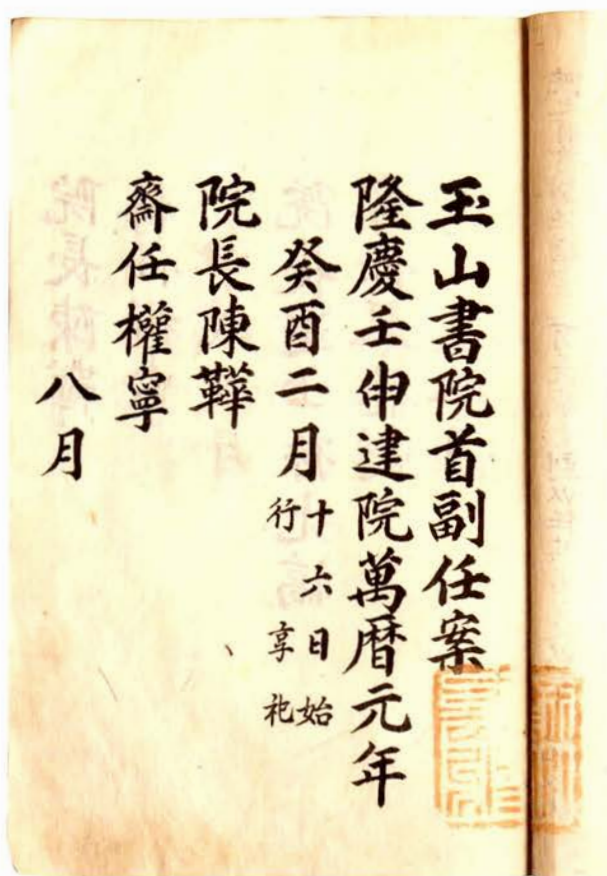
서원은 모두 40여 칸을 이루었는데, 그 중 사당인 체인묘(體仁廟), 강당인 구인당(求仁堂) 등은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이, 민구재(敏求齋)는 대사성 허엽(許驥)이 명명하는 등 당대의 인물들이 건립에 참여하였다. 구인당에 걸린 옥산서원 편액(扁額)은 원래 아계 이산해(李山海)가 썼으나 1838년(헌종 4) 화재로 소실된 후 새로 지으면서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다시 썼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노비와 전답인데, 옥산서원이 소유한 노비는 1694년(숙종 20)에 130명이었고 이후 꾸준히 늘어 18세기 말에는 180여명에 달하였다. 전답은 200섬지기나 되었는데, 경주를 비롯하여 청도·밀양·경산·영일 등에까지 걸쳐 있었다. 이것 외에도 감사나 인근 지방관이 서원을 예방했을 때 내는 현물 부조와 장기·영일 등에서 매년 보내는 소금 13섬이 있고, 선척(船隻) 등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정혜사(定惠寺)는 옥산서원 창건과 동시에 서원에 소속된 절이었다. 1834년(순조 34)의 화재로 전소될 때까지 회재 선생의 유물과 문집판각을 보관하고 서원에 필요한 현물을 조달하는 등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서원의 운영을 담당하는 원임(院任)으로는 원장(院長)과 유사(有司) 외에 직일(直日)·조사(曹司)·간임(間任)·공사원(公事員)·전곡(典穀) 등이 있었다. 원장과 유사, 또는 재임(齎任)은 수임(首任)과 부임(副任)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관직으로 말하면 장(長)과 이(貳)에 해당하여 장은 서원의 주인 역할을 하고 이, 즉 부임은 서원의 일을 도맡는다. 옥산서원에는 1573년(선조 6) 2월 16일 춘향례 때부터 기록해 온 『수부임안(首副任案)』 5책이 남아있는데, 한 해 전인 1572년(선조 5)에 서원이 건립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수부임안은 도중에 원장이 수현(首獻), 즉 초헌관으로 바뀐 것 외에는 거른 해 없이 매년 춘추향례 때마다 기록해 온 것이다.

서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는 경주지역 선비들의 존경을 받는 인사가 뽑혔다. 서원의 대소

사를 실제로 주관하는 원임은 유사이며, 서원에 특별한 중대사가 발생하면 그 직임에 따른 유사를 따로 세운다. 2010년 현재 유사는 여강이씨 회재 후손으로서 양동마을 출신이 2년, 옥산리 출신이 2년, 그리고 타성이 1년씩 돌아가며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23. 『수부임안首副任案』 5책(1573년 2월부터 기록)



天

戊子二月

首獻

李源萬

齋任

李樹東

戊子八月

首獻

李晶東

齋任

李志文

己丑二月

首獻

李相杰

齋任

李志文

己丑八月

首獻

李龍兌

齋任

權赫根

首刻

## 2) 춘추향례 春秋享禮

서원의 큰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열린다. 춘향례는 음력 2월 중정일 中丁日에, 추향례는 음력 8월 중정일에 체인묘에서 행한다. 정일 丁日은 간지 干支에 정 丁이 들어있는 날로 예로부터 제사일로 삼는 날이었다. 한 달에 세 번 오는데, 그 중 두 번째 정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그 밖에는 정월 초에 갖는 정알 正調과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갖는 삭망례 朔望禮가 있다. 삭망례는 서원 유사 有司가 분향 焚香과 재배 再拜만으로 간단히 진행한다. 이 글은 조사를 실시했던 2010년 춘향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1) 초집 抄執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재임 유사의 주관으로 행하는 삭망례 때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즉,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 獻官 세 명과 대축 大祝 한 명, 그리고 집례 執禮 한 명 등 총 다섯 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망지 望紙를 작성한다. 이러한 절차를 초집 抄執이라고 한다.

초집은 향사 때 핵심역할을 맡을 오집사 五執事, 즉 헌관 3인, 대축, 그리고 집례를 뽑기 위해 미리 갖는 모임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주요한 것만 골라서 모은다는 뜻이다. 서원에 따라서 이를 ‘초집 招集’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망지는 향사에서 맡을 직책을 적은 종으로 망望, 즉 그 직책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역할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것이다. 망지를 작성할 때는 접는 중심선과 겹봉 중심선을 일치시키며 네 줄로 써서 끝에 서원의 직인을 찍는다. 겹봉에는 이름과 사는 곳을 적고 뒷면 이음새에 근봉이라고 쓴 다음 직인을 찍는다. 이것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낸다.

망지에 쓰인 글을 보면 종이를 미리 횡으로 삼등분하여 종으로 써내려가는 글자의 높이를 규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즉 첫째 줄에는 ‘옥산서원 향례’를 위 두 칸에 쓰고 셋째 칸에 ‘헌관’ 등 직임을 쓴다. 둘째 줄에 들어가는 망望 자는 위 첫 칸에 쓴다. 셋째 줄에는 망 자에 높이를 맞추어 유학 〇〇〇을 위 두 칸에 걸쳐 쓴다. 마지막 넷째 줄에는 망 자보다 하나 내려 둘째 칸부터 ‘干支〇月〇日堂中’이라고 쓰고 그 밑에 서명하는 세 성씨를 쓴다. 구인당에서 보낸다는 뜻의 ‘당중’ 두 자에는 서원의 낙관을 찍는다. 망지 안의 내용은 전체의 중심에 배치하고 봉투도 전체의 중심에 맞춘다. 그래서 봉투와 망지가 각기 접어서 만나는 봉합부분이 동일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









서원 낙관을 찍는다.





완성 된 망지

제주는 서원의 살림을 담당하는 곳인 고직사(庫直舍)에서 향례 7~8일 전에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주담그기 하루 전에 미리 엿물을 만들어 술을 담글 때 사용한다. 엿물은 맵쌀과 엿기름, 물엿 등을 사용하여 끓인 후 식힌 것으로, 식혜와 유사하다. 제주를 담그는 날 아침에는 고두밥(잡쌀 5되, 맵쌀 5되)과 술약, 엿기름을 섞어 말린 후 술독에 넣는다. 여기에 엿물과 누룩을 넣어 잘 저은 후 술독 입구를 한지로 봉한 다음 '謹封'이라고 쓴다.





근봉<sup>謹封</sup>은 삼가 봉한다는 뜻인데, 망지와 겹봉처럼 봉합부분이 있을 때는 그곳에 이 두 글자를 써서 당사자 외에는 열어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술향아리를 누군가 건드려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근봉 두 글자를 적어놓는 것이다. 다른 제수도 마찬가지다. 술독의 근봉된 종이에 열십자로 칼집을 내는데 이는 술이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발효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술독은 방안에 둔다.



1. 고두밥과 누룩을 잘 섞어준다.
2. 입구를 봉하고 근봉<sup>謹封</sup>이라 쓴다.



## (2) 향례 사흘 전 제수구입

장보기는 포항시 죽도시장, 또는 가까운 안강읍 시장을 이용한다. 장보는 날은 장만 보고 음식은 다음 날부터 만든다. 죽도시장에서는 문어를 비롯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안강시장에서는 과일이나 폐백 등을 구입한다. 구입한 제수는 전사청에 옮기고, 문어는 기둥에 묶어 물을 뺀다. 수분이 빠지면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 날은 또 제주로 사용하기 위해 술독에서 맑은 술을 걸러낸다. 제주의 이름은 '청주'라고 한다. 제주 말고도 제사를 지낸 후 헌관 등을 대접하는데도 이 맑은 술을 쓴다. 그 외의 모든 참석자에게는 맑은 술을 거르고 남은 술밧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대접한다.

제수에는 생牲·폐幣·밤·대추·포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희생犧牲)과 폐(폐백幣帛)이다.

희생은 제사를 지낼 때 바치는 짐승으로 소·말·양·돼지 등이 있다. 과거에는 희생으로 양(염소)을 많이 썼다. 희생은 죽인 짐승을 신에게 바치는 것인데, 희생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인간과 신간의 유대를 위해 인간이 바치는 선물이라는 해석도 있다. 신하가 제후를 알현할 때 폐백으로 예를 갖추는 것처럼 폐백 역시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갖추는 예물이다.

옥산서원에서는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 폐백으로는 여섯 자 길이의 모시 옷감을 마련한다. 옷감은 제사가 끝나면 수고한 유사에게 준다.



1. 제수齎需 구입



2. 폐백幣帛 구입







1.2. 제주 뜨기







### (3) 향례 이틀 전 제물준비

향례 이틀 전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가 구인당에 모여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것을 개좌음례(開座揖禮)라 한다. 음례가 끝나면 향례에 참여할 집사를 정하고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하는데, 이를 집사분정(執事分定)이라고 한다. 분정이 끝나면 본래 이들에게도 망지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분정된 이들이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 향사에 참석한 유림들 중에서 선출한다.

이 날 행하는 주요 일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모든 유사·임원·집사 등은 전날 구입한 장거리로 제상에 오를 제물을 다듬고 손질하는 일에 참여한다. 제관이하 참사자들에게 제공될 음식은 서원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직사(庫直舍)의 서원관리인이 담당한다.



1. 제수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말린다.
2. 식사준비









## (4) 향례 하루 전

## 입재入齋

제일 하루 전 날을 정재일(整齋日)이라고 한다. 향례는 새벽 1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參祀者)들은 전일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서원의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에 도착한 참사자는 들어오기에 앞서 문 밖에서 의관을 갖춘다. 유건(儒巾)과 도포 등으로 기본 의관을 갖추지 않는 자는 서원에 출입할 수 없다.

과거 옥산서원은 사흘 전에 유사와 임원들이 서원에 들어와 제수(祭羞)를 장만하는 등의 일을 경건하게 임하고 행동을 삼가는 재계(齋戒)의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를 입재入齋라고 한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유사가 전반적인 제례 준비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입재는 하루 전으로 바뀌었다. 이날 제관 이하 참사자들 모두가 강당에 모여 개좌읍례로서 입재의 예를 갖춘다.

의관을 갖춘 참사자는 서원에 들어와 먼저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적고 다음에는 초헌관을 찾아 예를 올린다. 과거에는 향례 때 외에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심원록(審院錄)에 이름을 적었다.



1. 역락문(亦樂門) 앞에서 의관을 갖춘다.
2. 입제한 헌관들이 시도록(時到錄)을 작성한다.









초헌관에게 예를 올린다.





구인당(求仁堂)에서 개좌음례(開座音禮)









점심식사

### 감생례 鑑牲禮

감생은 성생 牲生이라고도 하며 희생으로 쓰일 돼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희생의 중요함을 알리는 의례이기도 하다. 점심이 끝난 후 집례가 “감생 鑑牲 아뢰오”를 세 번 창하면 참사자들이 역락문 밖으로 나가 예를 시작한다. 삼헌관은 북향하고, 돼지는 머리가 사당으로 향하게 북향으로 놓는다.

제관과 참사자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네모지게 희생을 둘러싼다. 아직 죽지 않은 돼지 한 마리 옆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세숫대야와 수건을 소반에 올려 놓는다. 유사는 시계방향으로 세 바퀴 돌며 천지신에게 고하고 돼지의 상태를 살핀 다음 초헌관에게 ‘충 充’이라고 하면 초헌관은 ‘돌 斷’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를 세 번 반복한다. 유사가 충이라고 한 것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 초헌관에게 물어본 것이고, 돌은 초헌관이 이에 대해 희생이 충분히 성숙, 즉 살찐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후 집례가 “파좌 罷坐 아뢰오”를 세 번 창하면 예가 끝난다.



1. 감생례 鑑牲禮를 위해 역락문 밖으로 나간다.
2. 제관과 참사자들이 희생을 둘러싼다.
3. 유사가 희생으로 쓰일 돼지를 살핀다.







### 집사분정執事分定

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분정에 앞서 망지와 벽에 걸 분정기(分定記)를 쓰는 조사(曹司)를 선출한다. 선출된 조사는 집례가 “조사님 출두 아뢰오”를 세 번 창하면 앞으로 나아가 임무를 수행한다. 먼저 공사원(公事員)을 천망하는데, 분정 때 적임자를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사원은 초헌관에 게「시도록」을 보이면서 이날 참석한 자들 중에 적당한 인물을 찾아 분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분정이 완료되면 집사들에게 각기 역할을 알린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적은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분정된 집사들은 헌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헌관 <small>獻官</small>	3人(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
대축 <small>大祝</small>	1人
집례 <small>執禮</small>	1人
찬자 <small>贊者</small>	1人
알자 <small>調者</small>	1人
찬인 <small>贊引</small>	2人
판진설 <small>判陳設</small>	6~7人
사준 <small>司誦</small>	2人
봉향 <small>奉香</small>	1人
봉로 <small>奉爐</small>	1人
봉작 <small>奉爵</small>	1人
전작 <small>奠爵</small>	2人
장찬 <small>掌饌</small>	1人
장생 <small>掌牲</small>	1人
관세위 <small>盥洗位</small>	1人
학생 <small>學生</small>	0人
직일 <small>直日</small>	1人
공사원 <small>公事員</small>	1人
조사 <small>曹司</small>	1人

헌관은 잔을 올리는 임무를 맡은 제관이다. 초헌 · 아헌 · 종헌으로 잔이 세 번 올라가기 때문에 헌관도 초헌관 · 아헌관 · 종헌관 세명이 필요하다. 대축은 축문을 읽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축문을 쓰는 일도 대축이 한다. 찬자 · 알자 · 찬인은 헌관들과 참사자를 바른 동선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헌관을 직접 인도하는 역할은 이 중에서 알자가 한다. 판진설은



제물을 진설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 판단하며 향사가 끝나면 제물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다. 사준·봉작·전작은 헌관이 잔을 올릴 때 따르고 건네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봉향과 봉로는 초헌관이 집행하는 분향례 때 역할을 한다. 공사원은 분정 때 책임자를 추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직일은 서원의 유사와 같은 존재로서 향사 전후의 준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조사는 향사 내내 글씨 쓰는 일을 도맡아 한다.

집사분정을 시작하기 전 고지기(관리인)가 헌관에게 예를 갖춘다.







1. 조사(司)를 선출하고 망지를 작성한다.
2. 선출한 조사의 망지를 살핀다.













1. 공사원公事員 천망
2.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 작성



# 求仁堂

心德何損發而曰遠  
一念知及即此是求

奉爵

陳載潤

幼學李太燮

李海東

李址榮

余爵

幼學李桂東

洪永植

李源奉

司尊

幼學權赫根

掌饌

幼學李志誠

掌牲

幼學李東憲

盥洗位

幼學李休

學生

幼學李斗煥

直日

幼學李志文

原

庚寅二月十三日

全事員

幼學李樹東

李章植

曹司

幼學李東浩

李虎雨



白鹿洞規  
 夫子有規焉其有失焉者則我  
 時有專制之規  
 右五教之目克我使賢為司規  
 教教其教仲此是之學方學此  
 而已而器所以學之序五者  
 五為其制如左  
 情學之官向之慎思之明辨之為  
 行之  
 右為學之序學問思辨明之序而  
 以有規也為其行之事則自  
 序中以至子處事接物之有  
 其制如左  
 實忠信行敬慎而重規遵矩此  
 之  
 至其謹不謹其制則其道不謹其  
 功  
 右處事之要  
 已而不此勿能於人持者不謹其  
 求其已  
 右接物之要

祭享執事分定  
 初獻官 幼學李大植  
 亞獻官 幼學金龍九  
 終獻官 幼學李相直  
 大祝 幼學權赫植  
 贊者 幼學鄒五龍  
 誦者 幼學權容浩  
 贊引 幼學李馥德  
 李志漢  
 列陳設 幼學李源河  
 李源戰  
 李雲德  
 李東汶  
 李勤植  
 李兩源  
 奉香 幼學徐永祚  
 金鍾黃  
 奉饌





### 사축寫祝

분정을 마치면 대축, 즉 축관은 체인묘 사당 문을 열어둔 채 내사문 밖에서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정해진 축문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베껴 쓴다고 하여 사축寫祝이라 한다. 삼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동쪽에서 서향을 하고 좌정하여 이를 지켜본다. 사축이 끝나면 대축은 이를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다시 대축에게 돌려준다. 대축은 축문을 조그만 축상祝床에 받쳐 들고 사당 중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1.2. 체인묘體仁廟 문 앞에서 축문祝文 작성









### 제수근봉(祭肅謹封)

이어 무변루와 구인당에서 사당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희생을 가자(笊子)에 실어 통째로 옮기는데, 중문을 통해 운반한다. 가자는 제기나 제물을 나르는 용도로 만든 것인데, 가마처럼 사람이 앞·뒤에서 들 수 있게 손잡이가 있다. 다음은 제관들이 체인묘 옆 전사청으로 옮겨 미리 손질한 제수를 변(便)과 두(豆) 등 각종 제기에 담는데, 이를 실찬(實饌)이라고 한다. 실찬이 끝나면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흰 한지에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제주(祭酒)를 봉할 때는 자리를 동재로 옮겨 중앙에 자리를 편 후 유사가 제주를 살펴보고 준(尊), 즉 술두루미 입과 술을 뜨는 국자를 깨끗한 백지로 봉한 다음 근봉이라고 적는다. 제주를 다 봉하고 나서 유사는 남은 제주를 음미하여 술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다른 집사는 찬품을 맛보고 제구(祭具)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향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유사와 집사는 세면과 세수로 몸을 정결하게 한다. 근봉이 끝나면 삼헌관은 강당 오른쪽에 위치한 동재인 양진재(兩進齋)에 따로 모인다. 아랫목인 오른쪽부터 초헌관·아헌관·종헌관 순으로 앉는다.



1. 가자(笊子)에 희생을 실어 통째로 옮긴다.
2. 무변루와 구인당 사이에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운반한다.















# 제수근봉祭需謹封



1. 유사가 제수를 확인한다.
2. 유사가 제수를 맛 본다.
3. 근봉 謹封한 제수들





### 식상개좌食床開坐

제수를 봉한 후 저녁식사를 한다. 제관과 참사자 모두 구인당에 모여 상음례를 한 후 둘러 앉아 함께 식사한다. 이를 식상개좌食床開坐라고 하며 모두 독상을 받는데, 각자가 받는 이 저녁상을 외상外床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향례 2일 전인 입재일入齋日 때부터 저녁상을 받지만 지금은 하루 전인 정재일整齋日에 행해진다.

향례 이틀 전을 임제臨祭, 하루 전을 정제正祭라고도 한다. 또한 향례는 당일 축시卣時, 즉 새벽 1~2시경에 제향을 올리고 끝나기 때문에 파제일罷祭日이라 부르기도 한다.





식상개좌 食床開坐













### 진설陳設

희생이 미리 진설된 상태에서 신위를 중심으로 좌변우두左護右豆, 즉 좌측에 변 4기,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변에는 마른 제수인 대추·녹포·황율·생선포를, 두에는 젖은 제수인 어해·녹해·미나리·부추를 놓는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슴을 구하기 힘들어 녹포와 녹해는 소고기로 대신한다. 어해는 가자미를 쓴다.



옥산서원진설도  
(玉山書院陳設圖)





진설 상차림



### (5) 향례 당일

향례는 새벽 1시경에 시작한다. 향례를 시작하기 약 30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의 대청, 또는 서재에서 야하<sup>夜下</sup>를 받는다. 야하란 밤에 내리는 것이란 뜻인데, 밤참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제사에 들어가기 전 허기지지 말라고 제공하는 미음 간식이 있다. 그 시각에 서원 관리인은 사당 문을 열고 초를 켜둔다. 이어 장찬<sup>掌饌</sup>들이 사당에 들어가 실찬<sup>實饌</sup>, 즉 제물을 제기에 담는데 실제로는 미리 실찬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제상에 진설하고 근봉<sup>謹封</sup>이라고 쓴 흰 띠를 푸는 것으로 대신한다.

집사들이 먼저 사당 정문 앞으로 가서 선다. 다섯 집사, 즉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검은 색의 재복<sup>齋服</sup>을 입고 갓을 쓰며, 나머지 집사들은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다. 다섯 집사들은 입제 때부터 이미 재복으로 검은색의 두루마기를 입는다.



1. 야하는 죽으로 대신한다.  
2. 야하<sup>夜下</sup>









# 점진설點陳設

향례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이 구인당 강당에 모여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유사의 홀기에 맞춰 사당 앞으로 향한 다음, 초헌관이 먼저 사당에 들어가 제수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의관을 정제한 헌관은 공수拱手, 즉 두 손을 모으고 집홀執翬, 즉 홀을 잡는 것이 기본자세다. 걸어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내딛고 방향을 바꿀 때는 일단 멈춘 다음 발을 모으고 각이 지게 움직인다. 뒤로 물러날 때는 굴신屈身한 자세로 삼보 뒷걸음으로 물러난다. 동쪽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부터 내딛은 후 왼발을 모으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반대로 왼발부터 내딛는다.

초헌관 점진설點陳設





### 개독開讀

위패를 덮은 나무로 된 함을 열어 위패가 보이도록 하는데, 이를 개독開讀이라고 한다. 위패에는 '문원공회재선생신위文元公晦齋先生神位'라고 썼다.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것이 홀기筭記이고 홀기를 낭독하는 것을 창홀唱筭이라 한다. 제관들은 창홀에 따라 맡은 임무를 행한다. 처음엔 유사가 창홀하지만 개독 이후 집례가 재배를 하고 나면 임무를 넘겨받아 창홀한다.

개독開讀





분향례 焚香禮

초헌관이 알자<sup>謁者</sup>의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서 삼상향<sup>三上香</sup>,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삼상향 三上香





### 전폐례 奠幣禮

초헌관이 신위 앞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채반 모양의 동그란 싸리받침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다. 전폐례를 마친 초헌관은 복위 復位, 즉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복위할 때는 사당의 서쪽 문으로 나오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온다.

전폐례 奠幣禮





## 초헌례 初獻禮

초헌관이 신위 앞에 헌작하는 절차이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사당 중문 밖에 마련된 준소 尊所 樽所 罇所, 즉 제주를 따르는 곳으로 올라와 동쪽 편에서 서향을 향하고 선다. 그런 다음 잔에 제주를 채우는 수작 受爵을 지켜보고 동쪽 문으로 사당에 들어가 신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 전작 贊爵은 신위에 올릴 잔을 중문을 통해 준소에서 받아 초헌관에게 건네고, 초헌관이 잠시 신위를 향해 들었다가 이를 봉작 奉爵에게 건네면 봉작은 잔을 받아 신위앞에 놓인 3개 작점 作站 중 왼쪽 점에 놓는다.

수작 受爵





현작 顯作





독축 讀祝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보수와 귀의 덮개가 열리기를 기다려 축을 읽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庚寅二月乙丑朔十三日丁丑後學幼學李大植  
敢昭告于  
先師文元公晦齋先生伏以學問淵深道德高厚  
東國攸宗歲享悠久屬茲仲春謹以清酌牲幣  
用伸常薦尚  
饗

維歲次庚寅二月乙丑朔十三日丁丑後學幼學李大植  
敢昭告于  
先師文元公晦齋先生伏以學問淵深道德高厚  
東國攸宗歲享悠久屬茲仲春謹以清酌牲幣  
用伸常薦尚  
饗

축문에는 회재 이언적의 깊은 학문과 높은 도덕은 우리나라의 조종이 되는 바 맑은 술과 희생과 폐백을 올려 오래도록 향례로 기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축문을 통해 서원에 모셔지는 인물은 학문과 도덕을 겸해야 하고 이 덕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다.

축을 읽고 있을 때 초헌관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부복하고 흥하라는 창에 맞추어 부복한 후 일어난다. 참사자들의 부복은 없었다.











신위를 향해 잔을 올렸다가 내린다.

초헌례 初獻禮





보리와 깨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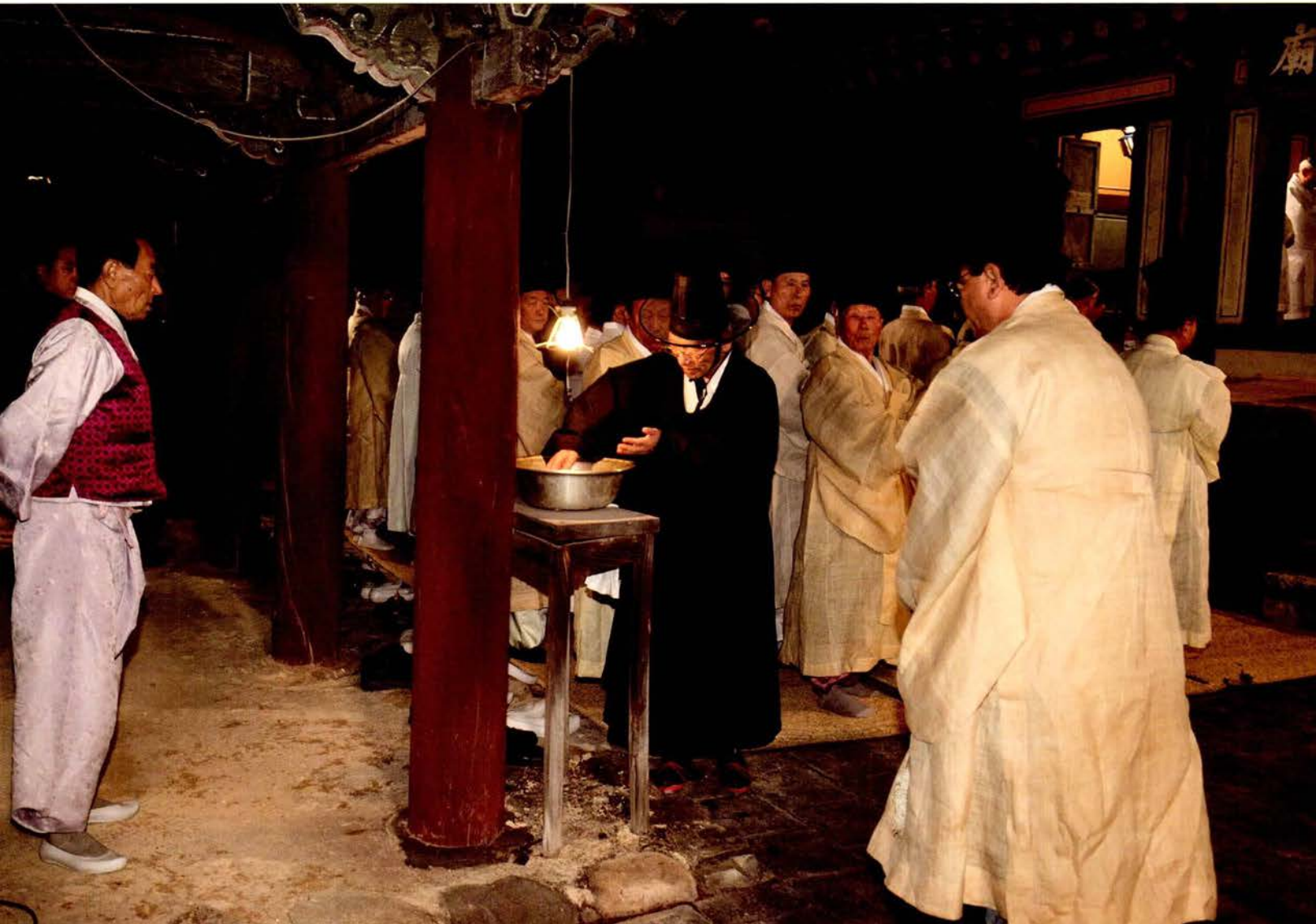


#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신위 앞에 헌작하는 절차이다.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준소에 들렀다가 신위 앞에 이르면 꿇어앉는다. 집사가 건넨 잔을 신위 앞에 잠시 들었다가 집사에게 건네면 집사는 잔을 초헌잔 옆, 즉 가운데 작점에 놓는다.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절차가 같다.



1. 세수 洗手
2. 전작 奠爵
3. 헌작 獻爵











종헌관 終獻官 봉작 奉爵

### 종헌례 終獻禮

종헌관이 신위 앞에 헌작하는 절차이다. 종헌례의 방식은 아헌례와 별 차이가 없다. 종헌례가 끝나고 종헌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세 헌관은 함께 재배하여 삼헌례가 끝났음을 알린다.



### 음복례 飮福禮

초헌관이 대표로 신이 흠향한 술과 고기를 맛보는 절차로 음복수조례 飮福受胙禮라고도 한다. 조胙란 제사를 지낸 고기라는 뜻이므로 수조는 이것을 맛보는 절차라는 뜻이다. 음복과 수조로 진행되는 음복례는 본래 대축이 제상의 초헌잔을 가져와 초헌관에게 건네 음복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대축이 준소에서 술두루미의 술을 떠 별도의 음복 잔에 채워 초헌관에 주면 초헌관은 잔을 다 비우고 빈 잔을 대축에게 건넨다. 이어 제사상에 놓인 육포를 가져와 음복상에 놓으면 초헌관은 이를 한 번 뒤집어 육포를 맛보았음을 대신한다.

음복수조례 飮福受胙禮







# 음복례 飮福禮



1. 음복수조례 飮福受酢禮
2. 음복상
3. 철변두







**철변두** 徹邊豆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치우는 절차지만 실제로는 변과 두를 모두 치우지 않고 대축이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이것으로 철변두의 예를 표한다.



# 망료례 望燎禮

망료례란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는 예다. 축을 폐백과 함께 묻을 때는 망예례 望楮禮라 하지만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폐백은 태우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향례가 끝난 후 유사에게 준다. 망료례는 대축이 철변두, 즉 변과 두를 물리는 예를 한 다음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행한다.





망료례 2009년





## (6) 향례의 마무리

음복례를 마치면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예필(禮畢)', 즉 향례를 마쳤다고 말하고 삼헌관과 참사자(參祀者)들을 인도하여 나간 다음 다시 돌아와 대축과 모든 집사들과 함께 재배하고 대축은 합독(合讀)하여 위패를 가린다. 마지막으로 유사가 재배를 올린다.

대축 및 모든 집사 재배





합동 鄒精





## (7) 향례가 끝나고

향례는 차분하고 경건하게 천천히 진행되지만 제향인물이 단향<sup>單享</sup>, 즉 한 분이어서 한 시간 내에 다 끝난다. 향례를 마치고 새벽 2시경에 참사자들이 모두 모여 앉아 제사 때 올린 음식 등을 나누어 먹는데, 이를 음복개좌<sup>飲福開坐</sup>, 또는 그냥 음복례라 한다. 향례절차에 들어있는 음복수조례와는 다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향례절차를 마친 후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강당에 모인다. 집례가 “음복개좌 아뢰오”를 세 번 창하고, 모두 모이면 “상음례 아뢰오”를 세 번 창한다. 음복상<sup>飲福床</sup>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sup>轉作</sup>, 즉 잔을 받는다. 이어 집례가 삼헌관에게 무사히 제사를 치렀음을 보고하고 음복상을 앞에 두고 앉아서 좌음례<sup>座揖禮</sup>를 행한다. 이후 일제히 음복례를 행한다. 음복상에는 제향에 사용한 제주와 함께 포와 밥, 대추를 조금씩 놓는다.

참사자들은 잠시 눈을 붙인 후 오전 7시 경에 아침식사를 하고 ‘치봉’, 즉 봉채<sup>封菜</sup>와 행자, 즉 여비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봉채는 봉치라고도 하며 예물을 의미한다. 치봉으로는 제사에 쓴 희생 고기를 봉채로 넣고, 행자로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넣는다.



1. 음복상<sup>飲福床</sup>
2. 잔에 술을 따른다.
3. 음복례









아침식사















### 3) 정알레 正謁禮와 삭망례 朔望禮

정알레 正謁禮는 정초에 올리는 제사이고 삭망례 朔望禮는 매 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다. 옥산서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 5일에 정알레, 즉 정초알묘 正初謁廟의 예식을 갖는다. 회재 이언적에게 올리는 새해 첫 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묘관은 유사가 맡는다.

#### 정알레 正謁禮

정알 正謁을 위해 지역 유림들이 하루 전에 입재에 들어간다. 다음날 새벽 5시 경에 알묘례가 시작된다.

#### 삭망례 朔望禮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로 삭망알묘 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다음날 새벽에 있을 삭망알묘를 위해 알묘관 등 제관들은 하루 전날 저녁에 입재한다. 다음날 새벽 6시경에 분향례가 시작된다.

1. 분향 分香
2. 삭망례 朔望禮









## 4) 제물祭物 · 제기祭器 · 제구祭具

제물, 또는 제수祭壽는 곡식, 희생 그리고 폐백이 기본이다. 『시경詩經』에 자성樂盛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니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정결하지 않다면 그 성의를 다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예절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 하였다. 자성은 나라의 큰 제사에 올리는 기장과 피를 말하는데, 대개는 피 대신 쌀을 준비한다. 서원제사는 서黍인 기장과 도稻인 쌀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모든 곡식을 통칭하는 육곡六穀을 상징한다. 육곡이란 서黍·직稷·도稻·량粱·맥麥·고粱를 말한다.

제수는 기본적으로 날 것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쓴다. 장을 보러 갈 때 미리 물물物目을 작성하여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밤·대추·포 등 제물은 모두 크고 빛깔이 좋은 것만 고른다. 포목전에서는 폐백으로 흰 모시 여섯 자를 구입하고, 정육점에서는 선도가 높은 쇠고기를 굵게 썰어달라고 부탁한다. 문어와 생선 등은 제관들을 접대하기 위해 구입한다. 제관들의 반찬은 고직사에서 장만하는데, 제수를 손질하고 참사자들의 식사와 간식 등을 마련한다.

제주祭酒는 직접 담근 것을 사용한다. 용수로 거른 맑은 술만 제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제주는 쓸 양 이상을 걸러 헌관들을 대접한다. 용수로 거른 제주는 준醕인 술두루미에 담아 입구를 흰 종지로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醕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산뢰山醴라고 부르는 술두루미 하나에 담는다. 용수로 거르고 난 후에는 남은 것으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삼헌관 이외의 집사와 참사자들을 대접하는데 쓴다.

서원향사의 희생으로는 한 가지를 올리는데, 대개 돼지 한 마리다. 성균관 석전대제 때는 소·양·돼지 삼생三牲을, 향교석전에서는 양과 돼지 두 가지를 올린다. 옥산서원도 희생으로 돼지 한 마리를 올린다. 희생을 담는 제기가 흔히 적대로 부르는 조俎다.

폐백으로는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양의 모시 옷감을 마련한다. 폐백을 담는 비대나무로 만든 납작한 재반을 비篋, 또는 광篋이라고 한다. 폐백은 일상에서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부모를 비롯한 여러 시댁어른들에게 드리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래는 신하가 제후를 방문할 때 인사로 올리는 예물을 말한다. 신에게 바치는 예물도 폐백이라고 하며 비단을 쓴다.

제구로는 그 밖에도 향나무·향촉香燭·필묵筆墨·양초, 축문을 작성하는 축지祝紙 등이 필요한데, 흰 종지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일일이 ‘근봉’이라고 종이 띠에 써서 보관한 다음 제사 때 봉한 띠를 풀러 사용한다.







제기는 용도에 따라 제물이나 제찬 같은 제수를 담는 것, 술과 물을 다루는 데 쓰는 것, 그리고 그 밖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곡식을 담는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匏)와 궤(甌)다. 보에는 쌀이나 메조(粱)를 담고, 궤에는 기장, 메기장[黍]이나 차기장[稷]을 담는다. 보는 안이 둥글고 밖이 네모지며 궤는 그 반대로 안이 네모지고 밖이 둥글다. 모두 굽이 달리고 뚜껑이 딸려 있다. 재료는 낫쇠다.

보궤의 둥근 것은 하늘을, 네모진 것은 땅을 상징한다. 보나 궤의 뚜껑에는 거북이 새겨져 있는데 대개 거북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탐식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릇에다가도 이와 같이 평소에 경계해야 할 교훈을 담았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궤를 놓는다. 초창기 문헌에는 2보 2궤라 하였는데, 서원제사에서는 언제부터인가 1보 1궤가 되었다.

반찬에 해당하는 제물은 대오리를 걸어 만든 변(鱊)과 나무로 만든 두(豆)에 담는다. 마른 제물은 변에, 젖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향교석전례는 소사(小祀)에 해당하여 8변 8두를 갖추지만 서원향사는 이보다 낮추어 서원에 따라 6변 6두, 4변 4두 혹은 2변 2두를 놓는다. 제물 중 녹해(鹿醢)는 사슴고기를 절인 것인데, 대개 소고기로 대신하고 녹포는 소고기포로 대신한다. 어해(魚醢)는 절인 생선으로 지역에 따라 올리는 종류가 다르다. 어포도 그러한데, 옥산서원에서는 어해는 가자미로, 포는 대구포를 썼다. 근저(芹菹)는 미나리를, 구저(韭菹)는 부추를 놓는데간혹 미나리로 통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옥산서원에서는 구저 대신 청저(靑菹)를 올린다. 청저는 생무를, 황울(黃蓀) 또는 융형(蓀)은 밤을, 건조(乾藁)는 말린 대추를 말한다. 변에 담는 제물로 간혹 형염(形鹽)이라고 하여 소금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옥산서원에서는 없었다.

조(俎)는 도마와 같이 생긴 제기로 양·소·돼지의 날고기인 희생(犧牲)을 올려놓는 데 쓰인다. 이 희생은 성궤(牲醴)이라고 하며 우성(牛腥)·시성(豕腥)·양성(羊腥)으로 구분된다. 조를 목생갑(木牲匣)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천조(薦俎)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조와 달리 희생을 담는 나무 상자조 위에 올려놓는다. 옥산서원에서는 희생을 놓기 위해 다리를 높게 제작한 조에 돼지를 바로 올려놓는다. 조는 본래 양쪽에 붉은 칠(朱漆)을 중간에 검은 칠(黑漆)을 하는데, 이곳에는 나무색을 그대로 두었다.

서원제사 때 사용하는 준(樽), 즉 술항아리에는 대개 세 가지가 등장한다.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 준은 소모양의 희준(犧樽), 아헌 술인 양제(盎齊)를 담는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樽), 종헌 술인 청주(淸酒)를 담는 준은 산과 구름 문양을 새긴 산뢰(山罍)다.

예제는 술이 다 되어 찌꺼기가 어우러진 술이다. 양제는 술이 다 되어 희고 푸른 총백색(雋白色)이 된 술이다. 주(酒)라고 하지 않고 제(齊)라고 한 것은 주에 비해 맛이 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사용 술이다.

산뢰의 문양은 구름과 우뢰의 넓은 덕택이 마치 제왕의 덕이 모든 신하에게 미치는 것과 같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다. 세 종류의 술과 술두루미를 다 갖춘 서원도 있지만 옥



향로와 향합



변



두





작점

산서원에서는 준으로 산뢰 한 가지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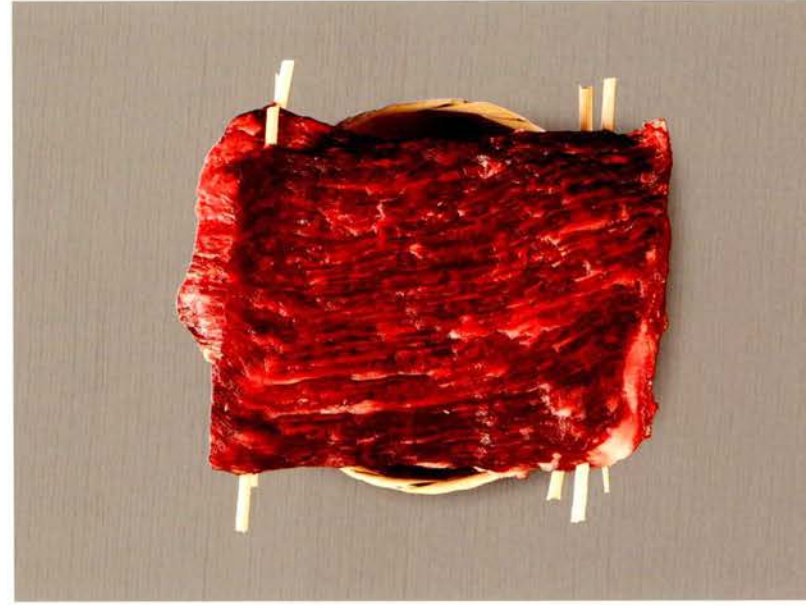
작<sup>爵</sup>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sup>流</sup>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sup>站</sup>에는 축점<sup>祝站</sup>과 작점<sup>爵站</sup>이 있어 축판을 올려놓을 때는 축점 술잔을 올려놓을 때는 작점을 쓴다. 점은 유기를 쓰지 않고, 나무를 사용한다.

작<sup>爵</sup>은 헌작, 즉 잔을 올릴 때나 관세<sup>盥洗</sup>, 즉 손을 씻을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되어있어 용작<sup>龍勺</sup>이라고도 하는데, 언제부터 왕실제사가 아닌 경우에도 썼는지 알 수 없다. 먹<sup>墨</sup>은 술두루미를 덮는 덮개인데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덮고 근<sup>謹</sup>이라고 써서 먹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 밖에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sup>香爐</sup>와 향합<sup>香盃</sup> 등이 있다.

제사에는 위와 같은 제기 외에도 다양한 제구들이 등장한다. 제상·교의·향안·쫓대·필<sup>畢</sup> : 고기를 집어 올리는 데 쓰이는 집게차린 생긴 도구 . 비<sup>匕</sup> : 가시나무로 만든 술가락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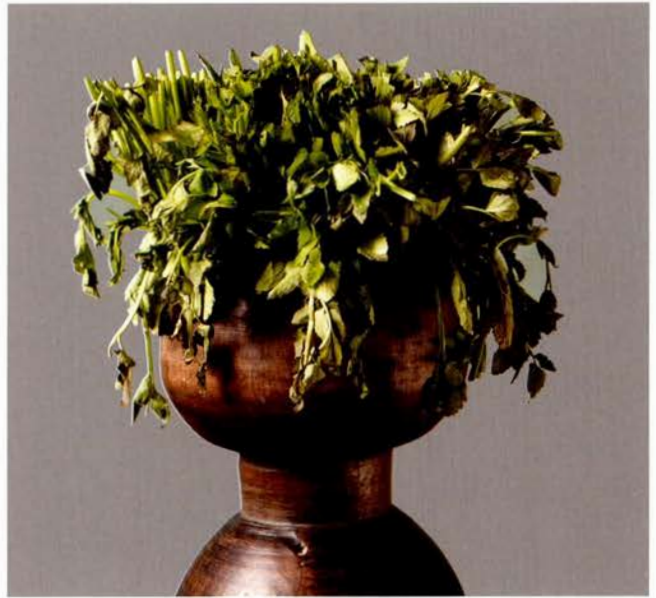
어느 서원이나 제기나 제구는 거의 동일하다. 간혹 일부는 근자에 같아지는 경향도 있다. 축문을 올려놓는 축판<sup>祝板</sup>은 대개 어디나 보이는데, 옥산서원에서는 축상<sup>祝床</sup>만 보인다. 또한 폐백을 담는 그릇은 일반 서원과 달리 이곳은 채반 모양의 싸리반침이다. 옥산서원에서는 희생을 운반하는데 가자<sup>駕子</sup>가 등장하였다. 희생뿐만 아니라 제물이나 제기를 운반할 때도 가자를 이용한다. 가자가 움직일 때는 신문<sup>神門</sup>인 중문과 그 사이의 신도<sup>神道</sup>를 통과한다.





변에 담긴 제수





두에 담긴 제수





公事員 望

幼學 李樹東

原

李章植

庚寅二月十二日 堂中



### 3. 옥산서원 향사의 특징

옥산서원의 향사는 다른 서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오랜 전통과 분위기를 간직해오고 있다. 우선 모든 서원시설이 제자리에 있어서인지 동선에 혼란이 없어 과거부터 행해오던 그대로를 이어왔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제관이나 집사, 그리고 참사자 모두 향사 경험이 많아서 제사 도중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흥기에 따라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시간도 여유 있게 진행한다. 향례를 마치고 행사를 평가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따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지 흠이 있다면 독축, 즉 축을 읽을 때 초헌관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부복하고 흥하라는 창에 맞추어 일어나는데, 다른 참사자를 위한 창이 없어서인지 초헌관 외에는 그대로 서 있다. 아니면 이것도 이미 오래된 관행일 수 있다.

춘계향사의 경우 바로 전의 삭망례와 연결하여 초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일정에 여유가 있다. 제물로서 희생(犧牲)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서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감생 절차를 옥산서원에서는 볼 수 있다. 특히 전체 진행에서 유사( 유사)의 비중이 큰 것도 옥산서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옥산서원은 제관이나 이하 참사자들이 각기 또는 일동이 재배할 때 국궁(鞠躬) 다음에 배(拜)를 하고 이후 흥(興), 즉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제대로 행하는 것도 다른 향사의 모범이 된다. 요즘 대부분의 향교나 서원에서는 좌배(坐拜)라 하여 ‘흥(興)’이라는 창에 직신(直身), 즉 몸체를 곧게 할 뿐 일어나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배(拜)’라는 창에 배례를 하고 ‘평신(平身)’이라는 창에 일어난다.

제일 하루 전 날을 정재일(整齋日)이라고 한다. 향례는 새벽 1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일반 참사자(參祀者)들은 하루 전 날 아침에 서원으로 온다. 참고로 서원의 제향 시각은 축시(晷時), 즉 밤 1시경에 시작하는 곳도 있고, 질명(質明) 즉 일출 전에 시작하는 곳도 있다. 주간에 향사를 행하는 서원도 꽤 많다. 옥산서원 향사는 축시에 시작된다. 축시는 날이 바뀌어 새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제향 하루 전 날 오전에 서원의 정문인 역락문에 도착한 참사자는 들어오기에 앞서 문밖에서 의관을 갖춘다.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데, 이는 경상지역 서원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감생례는 옥산서원 향사에서 희생 제물에 대한 비중을 크게 여기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집례가 “감생(監牲 아뢰오)”를 세 번 창하면 참사자들이 역락문 밖으로 나가 예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외위(外位)라고 한다. 서원 안팎에 대한 공간구분이 잘 드러나는 의례 절차다. 제관과 집사들은 상음례를 한 다음 서로 마주보고 서면 유사는 시생(侍生), 즉 생 돼지를 뜯 가운데에 안치하고 시생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국궁의 자세로 시생의 상태에 대해 초헌관에게 보



고한다. 중종 때의 문신 우재 손중돈(孫仲墩, 1463~1529)을 향사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의 동강서원(東江書院) 향사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야하(夜下)를 받는 것도 옥산서원 향사의 특징이다. 야하란 밤에 내리는 음식이란 뜻인데, 옥산서원 향사에서는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밤참과 미음 간식을 시간차를 두고 제공한다. 이러한 예법은 부근 양동마을의 여강이씨나 월성손씨 기제사에서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야하로 미음 간식만 나온다.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야하로 미음을 제공하는 의미는 저녁식사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제관들이 시장할 것을 우려한 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구감(口瘡), 즉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 때문인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제사의 예의에 어긋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제주와 관련하여 세 종류의 술과 술두루미를 다 갖춘 서원도 있지만 옥산서원에서는 준으로 산되 한 가지만 제주를 담는다. 먹은 술두루미를 덮는 덮개로 옥산서원에서는 먹을 쓴다. 먹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을 대신한다.

축문을 올려놓는 축판은 대개 어디나 보이는데, 옥산서원에서는 축상(祝床)만 보인다. 또한 폐백을 담는 그릇은 일반 서원과 달리 채반 모양의 싸리받침이다. 폐백으로 올릴 옷감은 한지로 싸고 흰 띠를 두 군데 두른 다음 겹치는 중앙선 부분에 각기 ‘근봉’이라고 세 번 썼다. 희생을 운반하는데 가자(架子)가 등장한 것도 옥산서원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이곳 향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黃

尋

院

錄



## 4. 옥산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운영과 조직

17 丁卯黃華節 驤江 李能允 謹識(정묘년 9월 여강 이능운 삼가짓다)  
이능운(李能允, 1850~1930)은 조선 말기 성리학자로 자는 순임(舜一), 호는 곡포(谷圃)이다. 본관은 여주(驤州, 驤江)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경주(慶州)이다. 본은 여강(驤江)이고 회재(晦齋) 이언적의 후손이다. 가학(家學)을 전승하면서, 경전과 사서(史書)를 익히고 제자백가의 서적들도 두루 탐독하였다. 과거에 실패한 이후 성리학에 뜻을 두고,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경전의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저서로 1969년에 7권 3책으로 간행된 『곡포문집 谷圃文集』과 성리학에 관련된 『맹자강의 孟子講義』, 『성론성론 性理論』, 『사칠이수기승론 四七理隨氣乘論』, 『심경강의 心經講義』, 『태극문변 太極問辨』 등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18 권녕은 권복시(權復始, 1556~1636)의 부친이며, 천사부장(天使部將)을 지냈다.

19 而以其國學故 首任必以鄉大夫 及省內有官爵者圈出(국학에서는 그런 까닭으로 원장은 반드시 고을의 대부, 관청 내에 관직이 있는 범위에서 선출했다.)  
—玉山書院首任案 中—

20 副以任其事 長以主其院 春秋享禮朔望 焚香恪謹奉行 明人倫育英才 其任尊且重矣 副任亦以閭閻 有才行兼備者擇選(재임은 그 사무를 맡고 원장은 그 서원의 주인으로 봄·가을 향례, 삭망 분향 등을 삼가 받들어 행하고, 인륜을 밝히고 명재를 기르니 그 임무가 높고 중하다. 재임 또한 공로가 많고 벼슬의 경력과 재주를 겸비한 자 중에서 가려 뽑는다.)  
—玉山書院首任案 中—

21 조선조 과거제도가 폐지된 시기는 갑오개혁(1894년) 때이다.

옥산서원은 1572년(선조 5)에 경주 부윤 이제민이 향중의 유림들과 함께 세웠다고 전한다. 하지만 『옥산서원수부임안 玉山書院首副任案』에는 서원건립이 만력원년(1573년)이고, 서원의 『수부임안 首副任案』이 만들어진 것이 157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옥산서원수부임안 玉山書院首副任案』은 여강 이능운이 1927년(정묘년)에 지었다.<sup>17</sup>

● 玉山書院 首副任案 隆慶壬申 建院萬曆元年 癸酉二月十六日 始行享祀

옥산서원 수부안은 용경임신(1572년)에 했고, 서원은 만력원년(1573)에 세웠고, 계유년(1573) 2월 16일 향사를 처음 행하였다.

만약 『옥산서원수부임안 玉山書院首副任案』의 기록이 맞다면 임원이 처음 구성되었던 1972년을 건립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겠다.

『옥산서원수부임안 玉山書院首副任案』에 기의하면 초대 원장은 진화(陳輝), 재임(在任)은 권녕(權寧)<sup>18</sup>이다. 이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 듯 하지만, 서원의 원장과 재임 등의 소임을 맡은 인물이라면 향리에서는 큰 인물이었음이 틀림없다.<sup>19</sup>

원장은 서원의 주인이며, 재임은 제반 사무를 맡았다. 이들은 봄·가을의 향례와 삭망분향례를 봉행하였고, 인재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다면보니 원장과 재임 모두 공로가 많고 벼슬의 경력, 재주 등을 겸비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sup>20</sup>

이렇게 오랜 세월을 원장과 재임의 체제로 구축되어 오던 것이 1927년(정묘)에 이르면 체제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사유 때문에 『옥산서원수부임안 玉山書院首副任案』이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다.

● 選院長以本尹爲之一 自科擧罷而世局變後 首任以德望文學選用

원장을 본 고을 부윤으로 한 번 선출했고 과거가 파하고<sup>21</sup> 세상 판국이 변한 뒤부터는 원장은 덕망과 문학으로 선출되었다.

● 鄉道任司以幹局識達擇取姓孫及鄉儒

고을 유사는 판세를 알아 달통한 성씨의 자손 및 고을 선비를 가려 취해서 맡았다.

● 雖隨時變 規其重一也

비록 시대의 변함을 따르나 법규가 중함은 한 가지이다.



● 自建院翌年癸酉以後 首副任姓諱官御逐年隨錄編爲四冊

서원을 세운 다음 해 계유년(1573) 이후부터 원장과 재임의 성과 휘, 관직의 직함(職銜)을 좇아 연대를 따라 기록하여 4책으로 편찬하였다.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사(有司)의 명칭이다. 유사는 재임(在任)과 같은 의미이다. 또 원장 선출에 대한 변화도 보인다. 과거와 학식 등으로 평가되었던 원장의 조건이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30년경에 이르면 원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사라지고, 재임 중심의 체제가 시행된다. 한일합방 이전 경주 부윤이 옥산서원 원장을 맡았는데, 서원의 원장은 관직에 있는 자가 맡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한일합방 이후(일제강점기) 경주에 부임했던 일본인 군수(郡守)가 옥산서원의 원장을 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서원 측에서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원장의 직함을 없애고, 새롭게 서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옥산서원운영위원회(玉山書院運營委員會)를 조직했다고 한다. 원장의 직함이 없어진 이후에는 초헌관(初獻官)이 향사를 기점으로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향사가 끝나면 바로 해지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옥산서원은 현재 옥산서원운영위원회의라는 조직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옥산서원운영위원회의의 형성 시기는 1930년대라고 서원 측(이후 운영위원장)에서는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이전 옥산서원운영위원회의의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1991년에 작성된 「옥산서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남아있어 옥산서원운영위원회가 이미 존속이 되고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시 회의 안건 및 의결사항을 통해 서원운영위원회회칙이 제정되고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안건>

- ㉠ 庚午年 決算報告
- ㉡ 辛未年 豫算案
- ㉢ 書院運營委員會會則制定
- ㉣ 書院土地賃貸借規定制
- ㉤ 編精工尋垡地使用料 他人에比遍多引下的件
- ㉥ 書院守護人二人 各報酬畚引上の件
- ㉦ 書院運營委員會 任員一部増員及更變
- ㉧ 書院垡地使用料 全般引上調定の建



현재 옥산서원 소장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에 실제적인 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문과 운영위원회회칙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된 내용상으로 볼 때 이 규정은 이미 한참 전에 만들어진 것을 재작성 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 목적은 ①사당 건물의 유지관리 ②서원 재정의 원천인 원답<sup>원답</sup>의 수호와 기타 토지사용에 따른 수급<sup>수급</sup> 관리 ③심원<sup>심원</sup> 집객 ④삭망분향 재임<sup>재임</sup> 보좌 향사 ⑤헌관에죽<sup>獻官禮祝</sup>의 선출과 망지<sup>망지</sup> 사송<sup>사송</sup>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서원운영을 의논하기 위함이다.

운영위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사항을 갖추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서원의 취지를 찬동하고 같은 향중<sup>향중</sup>의 유생으로 서원의 향례에 참여한 후학자<sup>後學者</sup>,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회칙과 규약을 준수하는 유교신봉자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회원으로서 사업에 헌정한 공적이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표창을 수여하기도 한다.

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재임<sup>有司</sup> 1명, 위원장 1명, 감사 2명, 재무 1명, 이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10년 전부터는 30명으로 수를 늘렸다고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유사 이외의 임원은 거의 유임<sup>留任</sup>하는 추세이다. 서원에 속한 유림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사업추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데, 이때 임원으로 승인된다고 해서 바로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망지를 써서 해당자에게 보내어 승낙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임원 중 유사는 서원을 대표하는 주인 격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소임이 막중하다. 유사는 독단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옥산서원 내의 유사는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유사가 서원 사업 운영과 재산을 관리<sup>22</sup>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유사는 제향만을 운영하고 재산은 서원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계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재무는 재산관리와 회계사무를 관리한다. 또 일정 시기에는 고문<sup>23</sup>이라는 직함을 두어 서원 업무와 향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지금은 고문으로 모실만한 분이 모두 사망하여 직함만 남아있을 뿐 사람은 없다.

운영위원회는 경주의 향내<sup>향내</sup>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강이씨의 본손<sup>本孫</sup>을 비롯해서 타성<sup>他姓</sup>들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성<sup>姓</sup> 비율은 3:1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은 본손, 1은 타성<sup>24</sup>이다. 감사는 2명인데, 그 중 1명은 타성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함이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1년에 2번으로 양력 정월과 6월에 개최한다. 정월 총회에서는 1년의 예산을 산정하여 가감을 논한다. 또한 운영관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데, 특히 위토답<sup>位土畓</sup>에 대한 수곡<sup>收穀</sup>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 해의 풍·흉에 따라 수곡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를 감하거나 증액하

22 『會計錄』(18세기 중엽)은 1743년 2월 ~1744년 5월 까지 회계를 맡은 유사(有司)가 바뀔 때 마다 회계를 달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손병규, 『조선 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 사학보』35(조선시대사학회, 2005)

23 신미년(1991)에 작성된 옥산서원운영위원회임원(玉山書院運營委員會任員) 명단을 보면 재임 1명, 고문 3명, 위원장 1명, 이사 1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타성은 아산장씨, 경주손씨, 옥구이씨, 청안이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 한 해에 합당한 세를 걷기 때문이다. 6월 총회는 향사관계, 재정관계에 대한 보완사항, 임원 및 이사 선출에 대한 인사 문제, 회계 감사 등을 논의한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여 서원의 중요한 일을 함께 공유했다.

옥산서원 운영위원회에서는 ①문원공<sup>文元公</sup> 회재<sup>晦齋</sup>의 도학숭앙<sup>道學崇仰</sup>, 향사 봉행의 지속 ②재임(유사)의 매월 삭망에 묘<sup>묘</sup>에 분향하는 일을 보좌 ③매년 불천위와 향사 봉행 ④회재의 도학사상을 널리 알리는 사업 ⑤회재의 유적유물을 보존·관리하는 사업 ⑥서원건물 유지, 보존, 관리 사업 ⑦서원 기본재산과 재정운영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의 위토답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평균 1,100만원정도인데, 풍·흉에 따라 100만원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기타 수익으로는 여강 이씨, 여주 이씨 종친회에서 기증하는 돈, 향사 때 서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향축대, 시에서 지원하는 향사 지원금 등이 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향사비용(500~600만원 소요), 회재 제사비용(150~200만원 소요), 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쓰인다.

「수부임안<sup>首副任案</sup>」과「옥산서원 운영위원회 회칙」



## 2) 전승과 지속

서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던 교육기능은 17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으나, 향내<sup>鄕內</sup>의 교육 중심지로서 그 명맥은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서원을 현재 드러내고 있는 유림들을 지속·결속시킨 힘이기도 하다. 옥산서원의 교육은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제향 인물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과거 옥산서원에서는 원장과 재임이 중심이 되어 인륜을 밝히고 영재를 교육[明人倫育英才 其任尊且重矣 -玉山書院首任案 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 하지만 서원의 교육이 인성교육만이 전부는 아니다. 옥산서원 원규<sup>院規</sup>에는 '其諸史子集詞章科學之業 亦不可不爲之'라고 하여 과거를 위한 과목 공부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옥산서원이 진사를 뽑는 초시<sup>初試</sup>를 볼 수 있는 서원이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산서원에 들어오는 유생들도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다. 시험을 통해서만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고, 아전이나 평민 중에서도 글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서원에 들일 정도로 학문을 숭상했다.

오늘날 옥산서원에서는 따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나 단체 등에서 서원을 방문할 때 서원의 유래나 역할, 유림의 덕목 등을 강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학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한문학이나 유학을 강의하고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교육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중요한 목판, 서찰, 고전적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옥산서원에는 『삼국사기』(보물 제 525), 『수필고본』(보물 제 586호), 『정덕계유사마방목 正德癸酉司馬榜目』(보물 제 524호), 『해동명적 海東名蹟』(보물 제 526호) 등을 비롯해 4천여 점의 서책과 고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유물전시관을 통해 많은 대중에게 유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玉山書院首副任案』

『玉山書院運營委員會會則』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대동문화연구총서』11(1992)

이수환 편저, 『玉山書院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13(1993)

손병규, 『조선 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조선시대사학회, 2005)

이상해, 『전통 역사마을 양동마을』(문화재청, 2008)

김문기 · 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경주향교, 『경주유교문화유적』(2010)

이수환, 『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예문서원, 2011)





















先師文元公晦齋先生伏以學問淵深道德高厚東國攸  
宗歲享悠久屬茲仲春謹以清酌牲幣用伸常薦尚  
饗

陳設圖

左四遠

鹿脯 魚脯  
乾棗 栗黃

燭

爵

尊所

神位

簋稻 簋黍

牲幣

香爐

爵

廟門

右四豆

鹿醢 芹菹  
魚醢 菁菹

燭

爵

祝站

笏記



與子孫復位 獻官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祝入撤籩豆 獻官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行望燎禮 謁者引獻官詣望  
燎位 祝入取祝降自西階燎於坎 謁者引獻官出 謁者還  
本位 祝以下俱復拜位 再拜 鞠躬 拜興 拜興 平身

出 贊者謁者俱復拜位 再拜出 祝闔櫝 掌饌者率其屬  
撤饌闔門

○ 옥산서원홀기 ○  
校安告由文

廟宇傷破事急修完茲消吉日敢告

還安告由文

工役訖功廟貌如故謹奉還安用伸虔告

### 祝式

維 歲次某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後學某官獻官姓名



# 옥산서원향사홀기(玉山書院享祀笏記)

- 贊者引初獻官升自東階(찬자인초헌관승자동계)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시오
- 點視陳設(점시진설)  
진설을 점검하시오  
※ 찬자(贊者)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 진설한 것을 살핀 다음 대축(大祝)이 개독, 즉 신위 독을 연다.
- 祝開櫝(축개독)  
축은 위패의 독을 여시오
- 贊者謁者贊引入就拜位(찬자알자찬인입취배위)  
찬자와 알자, 찬인은 배위로 들어가시오
- 再拜(재배)  
재배하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 贊引引學生入就拜位(찬인인학생입취배위)  
찬인은 학생들을 인도하여 배위로 나오시오
- 再拜(재배)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再拜(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배위 재배)  
축과 제집사를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 初獻官入就拜位(초헌관입취배위)  
초헌관은 배위에 서시오
- 拜·興·拜·興·平身(배·흥·배·흥·평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분향례(焚香禮)**

-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에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神位前跪(인에신위전 꿇)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전폐례(奠幣禮)**

- 祝以幣篚(축이폐비)  
축은 폐백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執幣以授祝(헌관집폐이수축)  
헌관은 폐를 들어 헌폐한 후 축에게 주시오
- 祝奠于神位前(축전우신위전)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초헌례(初獻禮)**

- 謁者引初獻官詣尊所 西向立(알자인초헌관에준소 서향립)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뿔개)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 受酒(수주)  
술을 받으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執爵(헌관집작)  
헌관은 작을 받으시오
- 執事受爵奠于神位前(집사수작전우신위전)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少退跪(소퇴궐)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祝進初獻官之左(축진초헌관지좌)  
축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 開簠簋蓋(개보궐개)  
보와 궐의 덮개를 여시오
- 讀祝(독축)  
축을 읽으시오
- 俯伏興(부복흥)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아헌례(亞獻禮)

- 謁者引亞獻官詣尊所(알자인아헌관에준소)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禮尊所西向立(인에준소 서향립)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司尊舉爵酌酒(사준거벽작주)  
사준은 벽(덮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執事者以爵受酒(집사자이작수주)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 跪(궐)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執爵(헌관집작)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 執事受爵奠于神位前(집사수작 전우신위전)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종헌례(終獻禮)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禮尊所西向立(인예준소 서향립)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司尊舉罍酌酒(사준거벽작주)  
사준은 맥(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執事者以爵受酒(집사자이작수주)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 執事亦跪(집사역궐)  
집사는 꿇어앉으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獻官執爵(헌관집작)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 執事受爵奠于神位前(집사수작 전우신위전)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 拜·興·拜·興·平身(배·흥·배·흥·평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음복례(飲福禮)

-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알자인초헌관에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시오

- 西向跪(서향궐)  
서향하여 서시오
- 祝詣尊所(축예준소)  
축은 준소로 가시오
- 以爵酌福酒(이작작복주)  
작에 복주를 따르시오
- 進獻官之左(진헌관지좌)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爵(헌관수작)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 飲卒爵(음졸작)  
다 마시시오
- 執事受虛爵(집사수허작)  
집사는 빈 잔을 받으시오
- 復於拈(복어넌)  
원래 있던 자리에 두시오
- 祝進減神位前胙肉(축진감신위전조육)  
축은 신위전에 나아가 조육을 조금 덜어내시오
- 獻官受胙(헌관수조)  
헌관은 조육을 받아 조금 맛보시오
- 以授執事(이수집사)  
남은 조육을 집사에게 주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철변두(撤邊豆)**

- 獻官及學生皆再拜(헌관급학생개재배)  
헌관과 학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 拜·興·拜·興·平身(배·흥·배·흥·평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망료례(望燎禮)**

-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알자인초헌관예망료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로 나아가시오
- 北向立(북향립)  
북향하여 서시오
- 祝就祝(及幣)降自西階(축취축(급폐)강자서계)  
대축은 축(과 폐백)을 들고 서계로 내려가시오
- 燎於坎(료어감)  
구덩이에 넣고 태우시오
- 謁者獻官引降復位(알자헌관인강복위)  
알자는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 謁者初獻官之左(알자초헌관지좌)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시오
- 白禮畢(백예필)  
예필을 고하시오
- 遂引初獻官出(수인초헌관출)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 贊引各引獻官出(찬인각인헌관출)  
찬인은 각 헌관들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 學生以次出(학생이차출)  
학생들은 차례로 나가시오
- 謁者贊引還本位(알자찬인환본위)  
알자와 찬인은 본례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 祝及諸執事皆復拜位(축급제집사개복배위)  
대축과 제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가시오
- 再拜(재배)  
재배하시오  
※ 대축 및 제집사(諸執事) 재배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出(출)  
나가시오
- 祝合饌(축합독)  
대축은 독을 닫으시오

**정알례(正謁禮)**

- 謁廟官以下皆拜位(알묘관이하 개배위)  
알묘관 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 引詣升自東階 香卓前(인예승자동계 향탁전)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탁 앞으로 나아가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謁廟官 俯伏興(알묘관 부복흥)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諸執事皆再拜(제집사 개재배)  
제집사는 모두 재배하시오
- 拜·興·拜·興·平身(배·흥·배·흥·평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禮畢(예필)  
예를 마치시오

**삭망례(朔望禮)**

- 謁廟官以下皆拜位(알묘관이하 개배위)  
알묘관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 詣盥洗位(예관세위)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 盥水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升自東階(인예승자동계)  
동쪽 계단으로 오르시오
- 三上香(삼상향)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謁廟官 俯伏興(알묘관 부복흥)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로 돌아가시오
- 皆再拜(개재배)  
모두 재배하시오